



지난 4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44차 총회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가주교협 신임회장에 박효우 목사, 수석부회장 출마자 없어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44차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인 박효우 목사가 회장으로 인준받았다. 11월 4일 통성한교회에서 열린 이 총회에서 박 목사는 사모특별위원회 신설, 목회자 성지 순례 추진,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등을 44대 교협의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 10월 29일 공천위원회의 각종 서류 및 자격 심사에서 만장일치 찬성으로 회장에 공천받은 그는 투표 대신 회원들의 박수로 인준받았다. 박 목사는 "전임자들이 그동안 걸어온 훌륭한 발자취를 따르겠다"면서 D이민교회 목회자 사모를 위로하고 섬기는 사모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D성지 순례를 다녀 오지 못한 목회자, 특히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위주로 성지 순례를 추진하겠다고, D지금까지 미주성 시화운동본부가 해 온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교협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박 목사는 통성한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제44대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제29대, 33대 미국개혁교단(RCA) 한인교회협의회 전국총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6월에는 멕시코 선교, 홀리스 선교 등 세계 선교와 사회 봉사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오바마대통령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교계의 관심이 집중된 수석부회장 선거에는 교협 역사상 최초로 아무도 출마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수석부회장은 사실상 차기 회장에 해당하는 요직으로 1년간 회장을 보좌함과 동시에 차기 교협을 구상하게 된다. 따라서 수석부회장 선거는 매년 총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 중 하나였다.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공천위원회는 "회기 중에 공천위원회가 후보를 공천하고 임원회가 결의해 임명한다"는 대안을 내어놓았지만 "임원회가 회원의 투표 없이 수석부회장을 선출할 수 없다"는 반대에 직면했다.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향후에 개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임시총회를 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제27대 회장을 지낸 김사무엘 목사가 "공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회원들이 그 공천위원회에 수석부회장을 선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자"고 제안했고 회원들의 재청, 동의를 얻었다.

이 결정에 따라서 박효우 목사가 이끄는 44대 교협은 회기 중에 수석부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수석부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박 목사에게 부과되는 심적 부담도 크지만 이번 사건은 남가주 교

연합 활동의 현 주소를 실감하게 한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2000년대 초반 교협이 분열과 정쟁의 대명사처럼 회자되던 당시, 교계는 이에 대한 반성으로 연합과 대사회적 섬김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기형, 박종대 목사 등 교계 연합 사역의 큰 손들이 회장에 나서서 기초를 놓고 신승훈, 한종수, 지용덕, 민종기, 변영의 목사 등 소위 실력과 목자들이 연이어 회장이 되면서 교협의 대사회적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 진유철 목사에 이르러서는 남가주 최초의 연합집회인 미스바성회 개최, 남가주 지역 12개 교계 단체가 연합한 이단대책실무모임, 국가기도의 날 참여, 뉴미디어 목회자 세미나 등까지 이뤄졌고 동성애 반대 서명 운동, 태풍 샌디 구호금 모금, 차세대 리더 장학금 모금 및 전달 등 대사회적 활동도 큰 결실을 맺었다.

과거에 비하면 연합의 환경도 좋아졌고 눈에 보이는 결과도 좋는데, 문제는 소위 '총대를 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교계에 정통한 한 목회자는 "교협 회장이 된다는 것은 두 군데에서 목회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교협의 업무가 회장에 과도하게 집중되기 때문에 목회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37대 회장을 지낸 박종

대 목사는 "대형교회 목회자 중에는 교협 회장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교회의 성도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론은 개교회 이기주의가 이번 사태의 주요한 원인이란 점이다.

어찌 되었거나 올 회기 수석부회장이 공석이 되는 사태를 두고, 회원들은 공천위원회에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임하는 한편, 수석부회장 선출 제도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1년 간 장기적 해법을 연구하기로 했다. 김사무엘 목사는 "현재 목회자 개인 혹은 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협에 각 교단의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교협이 교단을 안배해 수석부회장 후보를 교단으로부터 공천받는 형식으로 수석부회장 선출 제도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에 회원들은 임원 및 증경회장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연구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선 예배에서는 진유철 목사가 사회, 지윤성 목사가 기도, 차권희 목사가 성경봉독, 민종기 목사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43대 교협 이사진을 맡았던 박영집 장로가 헌금기도를 했고 양경선 목사가 광고, 박종대 목사가 축도했다. 김준형 기자

무엇이 진정 목회자를 성숙하게 하는가?



폴 트립 박사

유명 저술가이자 목회자인 폴 트립(Paul Tripp) 박사가 "목회자들을 성숙하게 하는 요소와 영적인 성숙의 기준"을 제시했다.

폴 트립 박사는 20일 '무엇이 진정 목회자를 성숙하게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성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혜롭고 겸손한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보이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드러내신 인내와 용서의 태도는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에 대해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은 매일 경험하는 복음을 통한 구원이, 다른 이들이 같은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는 열정을 준다"고 말했다.

트립 박사는 앞서 "우리는 사역의 준비성과 영적인 성숙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잘 교육되고 잘 훈련된 신학교 졸업이 사역의 준비라고 생각하거나, 사역의 지식과 분주함, 기술 등을 개인적인 사역의 성숙도로 생각한다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성숙은 매우 수직적인 것으로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평적인 표현을 가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목회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화의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세속적이고 거짓된 죄의 영향력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매일 유혹을 마주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고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 은혜로운 신학교 졸업생이 아닌, 은혜가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역의 자리에 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 10면으로 이어짐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마주방송통신 CGNTV USA

나라정비
 ASE 유렵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동부사랑의교회
 East Sarang Community Church
 담임목사 박승규 / Sr. Pastor Paul S.Park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예식
 2013.11.17(주일) 오후 4:30
동부사랑의교회 사랑채플

..... 초대이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부사랑의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로임직 김상헌, 박찬웅, 정학정
- 협동장로 취임 배준모, 신흥중, 이상연, 이용호, 이철, 임광순, 장상우
- 명예장로 추대 강중대
- 안수집사 임직 강형규, 김세현, 김크리스, 오홍주, 이은철
- 협동안수집사 취임 강정환, 김대현, 안병서, 이양훈, 최태식, 하준기
- 명예안수집사 추대 이흥구
- 권사임직 강선희, 김민이, 배영지, 오경애, 이옥숙, 장숙자, 조금선, 황재규
- 명예권사 추대 김순복, 김정희, 임화자

5540 Schaefer Avenue Chino, CA 91710 | TEL.909-590-3722 | FAX.909-548-3722 | www.eastsarang.com

소중한교회 김기동 목사 인터뷰

“이젠 망원경 아닌 현미경으로 영혼 보듬을 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지요.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닙니다. 또 전도를 해보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또 한사람 한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십여년 전 전국의 한국교회를 떠들석하게 할 정도로 화제였던 ‘고구마 전도왕’ 소중한교회 담임 김기동 목사(사진)의 말이다. 당시 그는 교회들의 섭외 0순위 강사로 부흥사였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목사가 됐다. 그것도 이곳 오렌지카운티 브레아에서. 화려한 이력을 모두 내려놓고 지인하나 없는 이곳에서 개척이라는 험준한 여정

을 시작한 지 벌써 두해 반을 훌쩍 넘긴 그에게 근황을 들어봤다.

그렇지 않아도 남가주에 교회가 넘쳐나는데, 혹자는 굳이 왜 김기동 전도왕까지 나서서 교회를 세우려 하나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왜 목사가 되셨나?

2001년 볼티모어 주 벤델장로교회 평신도 전도 사역자로 처음 미 대사관의 초대를 받아 미국에 오게 됐다. 당시엔 한 3년 정도만 열심히 전도해서 고구마 전도법을 미국에 심어주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요량이었다. 그렇게 전도하던 중 주위에서 신학을 공부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권유가 있어 신학교에 진학했고 졸업

후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긴 간격이 있었다. 목사가 넘쳐나는데 굳이 교회를 하나 더 세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전도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믿는 자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로부터 (어떠한 배경에서건 교회 내 발생하는 안 좋은 일들을 겪었거나 그러한 부정적인 면 때문에 시험받고 상처받고)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상처입은 영혼들을 어떻게든 다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다. 그리고 이민교회 특성상 다문화사회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면 외국인 비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실제로 전도 나가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30퍼센트 이상이 무슬림이었다.

이 시대 한인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우리 안에서만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되게 하기 보다, 우리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이웃 커뮤니티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눠줘야 할 근원적 사명이 있다고 본다. 미주 한인교회 또한 ‘우리끼리의 축제’가 되게 하지 말고, 전도에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장 다운타운에 나가보라. 노란 머리의 외국인들이 즐비하다. 그런데 전도하며 충격받은 것은 그들이 다 순수 미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무슬림이나 제3 세계 출신의 외국인들인데, 머리만 노랗게 염색한 거다.

이렇게 갈수록 이 나라가 다인종 다문화사회 성격을 짚게 가지게 되고, 비기독교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가고 있다. 이슬람을 비롯한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다종교 문화가 혼재된 가운데, 비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전도하면서 새로 깨닫게 된 점은, 전에는 ‘무조건 고구마를 찢러

보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되기 마련’ 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의 ‘고구마 전도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원경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현미경으로 세심히 주의 사랑으로 돌보려 한다. 이를 위해 브레아에 교회를 개척한 것이고 새로 목회를 시작한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브레아는 개척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만류했지만, 좁은 길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다. “한 영혼의 소중한”을 붙들고 소중한 주님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소중한 교회’라고 붙이게 됐군요.

그렇다. 영어로는 “프레스스 커뮤니티 처치(Precious Community Church)”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 가운데 선교가 있다. 선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물론 새로 선교사를 파송보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직접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이미 현지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는 사역, 즉 간접선교에 보다 중점을 두고 사역해오고 있다. 그간 두 바이를 비롯해 인도 아르헨티나 등등 1년에 한 번씩 매년 8월이면 전 세계 한인선교사들이 이미 선교 나가있는 곳의 지역교회 한인선교사들을 모아 집회를 해오고 있다.

그 분들 가운데에는 선교지에서 오래 개척하면서 지쳐있는 분들, 선교를 하면서 한국 파송교단으로부터의 돌봄이나 지원이 없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러한 분들의 가슴에 다시금 복음의 불꽃의 심지를 살리고, 꺼져가는 등불에 심지를 다시 살려 재점화해서 선교지로 재파송하는 것이다.

현지에서 선교하느라 지친 한인선교사님들에게 김치나 잡채 등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이 김치 만드는 재료인 것 같아서부터 고추장, 고춧가루 등을 손수

준비해 비행기에 실어서 가져간다. 여행지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짐이 있기 마련인데,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 본인들의 짐은 최소화한다.

선교 현지에서 지친 선교사님들에게 그날만큼은 한국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게 하고 아무런 걱정없이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축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서 선교사역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선교’다.

2세 교육에도 관심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미국 내 공교육이 갈수록 향방을 잃고 세속주의 물결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목회를 해보면 자라는 2세들은 마치 아직 때 묻지 않은 하얀 도화지와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다 자란 성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났다 해도, 과거의 것들을 지우느라 바쁘다. 어찌 보면 그것을 지우느라 온 신경을 다 쓰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어린 영혼들은 다르다. 어릴 때 주일학교를 통해 복음을 접한 아이들이, 후에 커서도 어릴 때 그 영혼에 각인된 기억 때문에 설명 그가 성장과정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를 떠난 다 할지라도, 어릴 때 복음을 접한 아이들의 많은 비율이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는 통계도 있더라. 그러니 어린 영혼들에게 2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립 교육이 심각하기에 우리교회도 기독교 사립학교 건립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다.

성도 수가 불어나면서 목회하느라 정신없이 바빠지셨을텐데, 지금도 밖에 나가 실제로 노방전도를 하는가?

물론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인들과 밖에 나가 전도한다. 그리고 지역 교회를 품기 위해 함께 인근 산에 올라 손잡고 기도하기도 한다.
◇소중한교회: ▶주소: 774 S. Placentia Ave., Placentia, CA 92870
▶전화: (714) 990-9191 ▶웹사이트: www.sojunghan.org

정한나 기자

VISIONDRIVE HD BLACK BOX

SF코딩으로 더욱 더 고급스러워진 HD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전후방 또는 실내를 항시녹화

영상 보정 기능으로 정확한 영상 분석/LCD 영상 재생 / 확대보기 기능

고성능 GPS 센서 내장/ 속도, 위치, 시간, 방향까지 확인

Battery 방전 방지 시스템

구입문의 : **Joseph Park** 213.235.7836
www.carblackboxstore.com 310.902.3944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이 시대 젊은이들이 성령의 불로 변화되는 현장! 더 높은 부르심 앞에 서는 현장!

2013 미주청년학생 겨울수련회

HIGHERCALLING13

12/26 (목)-12/29(일)
San Diego Town and Country Resort & Convention Center

FRANCIS CHAN
The author of "Crazy Love"

DAVE GIBBONS
Newsong Church

JIM-BOB PARK
Oriental Mission Church

and DONG WHAN KIM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USA

REGISTER NOW
www.gohighercalling.com

\$190 by DECEMBER 9
\$240 on DECEMBER 26

3박 4일 Hotel 숙박, 등록비 포함

주관 2013 HIGHERCALLING 준비위원회
주최 KCCC USA
NexGen Pastors Fellowship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명예대회장: 손인식목사 송경명목사
대표대회장: 박희민 목사

Higher Calling Headquarters
213.389.5222
1636 W. 8th Street #100
Los Angeles, CA 90017
Email : gohighercalling@gmail.com

대회일정 : 2013년 12월 26일(수) - 29일(토)
대회장 : San Diego Town and Country Resort & Convention Center
대상 :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
유학생(영어, 한어권) 선착순 3000명
등록방법 : www.gohighercalling.org 에서 직접 신청
Pay to the Order of : Higher Calling Conference 또는 HCC
(메모란에 소속단체를 써주세요)

HIGHER CALLING CONFERENCE 2013

남가주교협 43회기 사역 보고

지난 회기 남가주교협 이렇게 사역했다

대외 구제구호 사역 돋보여, 남가주 최초의 연합집회 등 성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44차 정기총회를 끝으로 사실상 회장직을 마친 진유철 목사는 “남가주의 1350개 교회를 모두 잘 섬기는 것은 역부족이긴 하지만, 오히려 부족함이 오병이여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더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음박질 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교회를 섬기고 연합하는 일을 위해 한 알의 밀알처럼 죽는 믿음이 된다면 풍성한 열매는 계속 많이 맺어지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지난 회기의 사역을 정리한 진 목사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풍성”이었다. 진 목사는 “지금 총회가 열리고 있는 풍성한교회의 이름처럼 여러분의 희생적인 협력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다”고도 했다.

진 목사의 표현대로 제43대 교협은 ‘안된다’, ‘어렵다’는 연합의 장애물들을 기도와 도전 정신으로 넘어선, 결실들이 풍성한 한 회기였다.

재정적으로 탄탄하게 운영 회장단 · 이사회 발전기금이 큰 몫

교협이 보고한 회계 보고서에 따르

면, 전체 수입은 이월금 1,936.71달러를 포함해 101,051.06달러에 달했다. 교협 주회의 각종 예배와 미스바대성회, 부활절 연합예배, 광복절 예배에서 31,168.35달러의 헌금이 모였고 허리케인 샌디 구호 모금에서 11,746달러가 담겼다. 사랑의쌀 헌금은 5,800달러, 부활절 연합예배 홍보를 위한 비용도 남가주 지역 8개 교협이 힘을 모아 5,900달러를 확보했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재정이 충당됐지만 사실 행사로 인한 수입이나 대외 구제구호 목적의 수입은 그 수입만큼 지출했기 때문에 사실상 교협을 유지시킨 재정 능력은 회장단과 이사회의 발전기금 39,700달러와 나성순복음교회와 충현선교교회의 특별헌금 4,899달러였다고 볼 수 있었다.

행정 비용은 전체 35%, 행사 비용은 44%, 대외 구제에 20%

이번 교협은 씬 씬 면에서도 흠잡을 곳이 없었다. 총 지출액 98,131.37달러 중 교협의 행정적 운영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사무실 렌트 비용 10,473달러, 전화 비용 1,803.32달러, 총무 활동비 12,000달러, 각종 행정

물품 비용 5,154.04달러, 실무진 수련회 및 CPA 비용, 각종 항공비용 보조 5,164달러 등 34,594.36달러로 전체의 35%에 그쳤다.

각종 행사를 위해서는 회장 이취임식에 1,958.50달러, 신년 조찬기도회에 1,706.88달러, 광고홍보비에 6,030달러, 관련 인쇄비에 5,243.61달러, 감사패 및 화환에 1,982.90달러, 기간담회 및 이사회 모임 등의 접대에 4,665.29달러, 교회 연합 운동회에 1,375.10달러 등 22,962.28달러를 사용했다. 미스바대성회 자체에만 추가로 20,578.73달러가 들어 사실상 여기에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됐다. 이로써 행사 관련 지출은 총 43,541.01달러로 전체의 44%로 집계됐다.

이번 회기의 지출 사항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것 중 하나는 뉴욕교협에 허리케인 샌디 구호 기금 13,746달러를 전달한 것과 사랑의쌀에 5,800달러를 후원한 일이다. 이것은 교협이 순수하게 대외적 목적으로 모금해 지출한 것으로 전체 지출의 20%를 차지했다.

교협의 수입 지출에 잡혀지는 않았지만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와 함께 98명에게 차세대 장학금 약 79,000

달러를 전달한 일도 주목할 만했다. 이 장학금은 음악회나 물품 판매 등이 아닌 교회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만 모금돼 남가주 교계 모금 역사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1년간 144건의 사역 보고, 연합 사역 돋보여

지난 회기 교협이 주최, 후원, 협력, 참여한 행사는 실제 행사와 그와 관련된 준비 모임까지 다할 경우 총 144건으로 보고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행사는 역시, 남가주 교계 역사상 최초로 열린 연합 집회인 미스바대성회였다. 뉴욕이나 시카고 지역 등은 교협 주회의 할렐루야 집회를 통해 교회 연합을 다져왔지만 남가주에는 지금까지 이런 집회가 없었다. 박보영 목사를 감사로 초청해 3월 1일부터 3일간 열린 집회는 매 집회마다 1천여 명에서 1천2백여 명이 상이 참석하며 동양선교교회 본당의 좌석이 모자라기도 했다.

또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도 2월 14일 남가주교협을 중심으로 남가주목사회, 동부교역자협의회, 벤추라교협, 사우스베이목사회, 샌디에고교협, 샌버나디노카운티교협, 샌페르난도밸리교협, OC교협,

OC목사회, 인랜드교역자협의회, 중부교협 등 12개 단체가 범남가주적으로 참여했다. 이 협약은 남가주 지역 곳곳에 위치한 교계단체들이 최초로 한 자리에 모인 의미있는 행사로 “교계연합체의 연합”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또 이것이 계기가 되어 부활절 연합예배 신문 광고도 각 지역 교협이 함께 게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뉴욕교협에 허리케인 샌디 구호 기금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타주 교협과의 협력도 시작돼 두 단체는 6월 27일 복음전파와 인적 자원 공유, 이단 대처 등에 있어서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다.

대사회적으로는 교계 및 사회 지도자 초청 신년조찬기도회, 한인회 삼일절 기념식, 박근혜 대통령 사회지도자 간담회, 사랑의쌀 나눔 운동, 총영사관과 함께 하는 무료건강검진 행사,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등에 참여했다.

무엇보다 연방대법원의 결혼보호법과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8 판결을 앞두고 금식기도를 요청하며 기자회견과 각종 행사 등으로 교계와 사회에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도 자처했다. 현재도 교협은 소위 트랜스젠더 화장실법으로 불리는 AB1266 법안 반대 서명을 벌이고 있다. 김준형 기자

개척교회 살리는 “2·3·4 운동” 이민교회도 적용할 듯

기성 조일래 총회장 주도 “목회자 역량 강화 통해 교회 살리는 것이 목적”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장 조일래 목사가 LA에 방문한 자리에서 미자립교회 자립·부흥을 위해 2·3·4 운동을 펼칠 것을 피력했다. 이 운동은 미주지역에서도 적용 방법을 놓고 논의하고 있어 주목된다.

조일래 목사는 미주성결교 남서부 지방회 주회로 10월 25일부터 27일에 열린 3회 할렐루야성회 강사로 참석차 LA에 방문했으며, 26일 오후에 JJ그랜드호텔에서 미주총회본부(총무 박승로 목사)와 남가주 성결교역자회(회장 신현철 목사)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2·3·4 운동은 미자립교회 목회자가 매일 2시간 기도, 매일 3시간 성경읽기, 매일 4시간 전도를 통한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월요일과 국경휴무일 외에는 2·3·4 운동을 지키며 목회에 전념하겠다는 것을 서약해야 한다.

조 목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개척

교회가 몇 년 동안 몸부림치다가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지치는 것이 오늘날 목회 현실”이라며 “교단에서 개척교회를 계속 지원하지만 자립이 안돼서 해이에 빠지는 것이 모든 교단의 공통적인 숙제다. 그래서 2·3·4 운동, 9시간 훈련을 해서 보고를 통해 각 목회자 지원금을 책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는 이 정신을 심어주는 특별집회를 열고 203명이 서약을 해, 현재 이 목회자들이 운동에 참여해 삶에 결실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다”며 “동기는 개척교회를 살

리자는 측면도 있지만 목회자의 자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목회 역량이 향상돼 돕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생생히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목회자가 살고 교회가 살고 교단도 살고 한국교회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교회 외에 이민교회와 선교사에게도 이 운동을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 교회 부흥 운동을 펼쳐 나가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주성결교 내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왼쪽부터) 신현철 · 조일래 · 박승로 목사.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완고한 통증(요통, 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 등)의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태바 선교회원회 부설 · 다나병원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213.487.0691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유티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성가합창제로 오렌지카운티 교회들 연합 다지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주관으로 베델한인교회서 열려



지난 20일 베델한인교회에서 열린 제33회 오렌지카운티 교회연합 성가합창제 전경.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박우진 집사, 이사장 윤우경 집사)가 주관한 제33회 오렌지카운티 교회연합 성가합창제가 20일(일) 오후 6시 30분에 베델한인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500여 청중이 함께한 성가제는 예년과는 달리 사회자가 없이 진행되었는데, 조용한 가운데 부드러운 진행으로 수준 높은 연주회가 되었다는 평

이다. 성가제가 마칠 때까지 청중과 출연한 성가대원들은 미리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모두가 함께 한가슴 벅찬 감동적인 합창제였다.

행사는 회장 박우진 집사의 인사말과 베델한인교회의 손인식 목사님과 김한요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OC교회 연합회장 민경엽 목사의 축사, 그리고 부회장 이호우 목사의 개회기도로 막을 올렸다.

출연진은 나침반교회찬양대(지휘 류봉수 목사), 포이에마여성합창단(지휘 곽명규), 선한목자장로교회찬양대(지휘 김원재), 미주여성코랄(지휘 오성애), 소노로스남성중창단(지휘 이종환), 함께하는교회찬양대(지휘 유기훈 전도사), 인랜드교회찬양대(지휘 이재경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4부찬양대와 오케스트라(지휘 이영진 목사), 은혜한인교회 은혜성가대와 그레이스오케스트라(지휘 윤태중 박사), 베델한인교회성가대와 오케스트라(지휘 김종만 장로)였으며 마지막 장식인 연합합창은 연합오케스트라 지휘를 음악감독 송규식 목사가 맡았으며, 600여 대원이 함께 부르는 헨델의 할렐루야 찬양으로 성가합창제의 절정을 이루었다.

이 행사는 갈수록 기독교 문화가 약화되어 가는 시대에 청중이 함께하는 성가합창제로 발전시켜 가기 위한 노력으로 성공적인 성가제가 되었다는 평이다. 행사는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자문 주도인 목사의 축도로 마쳤으며, 베델한인교회가 준비한 리셉션으로 교회연합의 장이 되었다.

영상설교아카데미 LA지부 “shade 3D” 열공



영상설교 아카데미 수업 전경.

IT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목회 환경 또한 변화의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는 오늘날, 효과적인 전도 수단 중 하나인 영상설교와 영상물 제작을 소개하고 있는 영상설교아카데미 LA지부(회장 곽부환 목사)가 가을 정기 세미나를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마음제자교회(곽부환 목사)에서 진행했다.

정기 세미나에는 특히 영상설교아카데미 대표 김석균 목사가 강사로 나서 shade 3D에 대해 강의했다. 김 목사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림설교와 파워포인트 130여 편을 출판해

한국교회와 전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또 영상설교를 위해 광운공대 동 대학원에서 소프트웨어 전공, 교육용게임 전공,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목회에 필요한 영상설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강의하고 있다. 현재는 꽃동산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영상설교 아카데미에서 2400명의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다.

곽부환 회장은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영상시대에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복음을 전파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해서 목회에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동성애 문제...소셜 혜택 놓고 권력 쟁투적인 모습

미주장신대, ‘동성애’ 주제 공개강연회 개최



29일 미주장신대가 ‘교회, 동성애에 대해 말하다’를 주제로 공개특별강연회를 열었다.

미주장신대가 건강하고 풍성한 신학과 신앙의 양식을 신학생은 물론, 지역의 이웃들과 누리기 위해 공개특별강연회를 마련했다. 공개특별강연회는 29일 오후 5시

부터 7시 30분까지 “교회, 동성애에 대해 말하다”란 주제로 컨퍼런스 형식으로 열린 가운데, 사회는 강우중 교수(미주장신대 기독교윤리학)가 맡았으며, 사회-문화적 관점(발제 미주

장신대 최상준 교수), 성서적 관점(발제 창조과학교회 최우성 박사), 기독교 윤리적 관점(발제 풀러신학대 이학준 교수)으로 동성애 문제를 다뤘다.

최상준 교수는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허용해달라는 것은 경제적 배넛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과 사랑의 문제, 가정을 이루는 문제가 아니라, 소셜 배넛을 두고 고조되고 있는 사회 계급투쟁에 동성애가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동성애 이슈는 이제 의사당과 대학들, 미국의 양심과 언론들에 강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 이슈는 사랑의 성취, 섹스의 자유권, 신체적 권리 확보를 위한 사회적 호소력과 문화적 권력쟁투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최우성 박사는 “동성애자들은 신체나 모양, 성격 등 많은 것들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서 동성애 성향도 유전적일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해보면 답을 알 수 있다”

며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쌍둥이는 둘 다 동성애자가 되든지 둘 다 이성애자가 되는 것이 맞다. 동성애와 관련해 초기 보고에 보면 52%가 유전적 요인이라 했는데 잘못된 보고였다. 다시 조사해보니 확률이 20% 밑으로 떨어졌고 최근 보고서에는 10% 미만으로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학준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분위기가 친동성애적으로 바뀐 것은 이라크 전쟁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8년 동안의 통치가 크리스천의 말에 신뢰성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에틀란타에 2만명이 모이는 흑인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알고 보니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 극단적으로 비판하면서 동성애 행위를 벌인 것은 큰 충격이었다”고 했다.

토마스 맵 기자

HEAVEN EARTH TRADING Import & Wholesale

213)386-3585

SANSAM

산삼(인디언이캔야생산삼) 모든 건강식품
 매실/홍삼제품 한약제품
 Vitamin 각종 즙

(LA 한남체인내)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지긋지긋한 당뇨병 타복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체질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PRO-Z

신제품 소비자 공급가 \$76
 * 한국에서는 \$145에 판매중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

213.434.1170

621 S. Virgil st. Suit260
 Los Angeles CA 90005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이연과 크롬으로 의약품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체중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췌장에 인슐린 분배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당뇨 개선제 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대하 20:1-1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1. 모압과 암몬이 연합 마온족을 앞세워 여호사밧왕(유다)을 쳐들어옴.

A. 그 이유는 역대하 19:2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셨기 때문인데 북국 이스라엘의 제 7대왕 아합과의 연합(緣婚) 아합의 딸 아달라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키고 사돈지간이 된 아합왕의 유인으로 아람과의 전쟁에 지원 참전했다가 아합 왕은 전사 참패를 당하고 유다군도 여호사밧왕도 지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아합은 시돈의 왕 옛바알과 동맹하여 속적인 아람을 경계하기 위하여 옛바알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받아들여 이스라엘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합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B. 길르앗 라못을 아람으로부터 되찾겠다는 아합왕의 제의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와 말씀을 들어보자고 했을 때 아합은 거짓말하는 선지자 400명을 모아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대하 18:5)" 했으나 여호사밧이 이 들외에 우리가 몰을만한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하니 아합이 아말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으나 저는 내게 길(吉)한 예언을 한일이 없으면서 미가야 선지를 불러 예언하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왕 아합을 꾀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할꼬" 하셨으니 아합왕이 전사하므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라고(대하18:19) 했는데 여호사밧왕이 신앙인이었으나 저주받고 있는 아합왕의 선동에 코가 꺾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람과의 전쟁에 동참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2. 모압 연합군의 침략 소식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온 백성까지 금식 기도를 선포함

본문 3-4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했으니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간구하는 신앙 자세에 우리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5-9절에는 하나님의 베푼 우리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후손에게 기증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있다면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제를 드릴 때 재앙, 난리, 견책, 언역, 기근이 임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 하시겠다는 불의 응답을 상기 시키면서 12절에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하며 애타게 여호와와 구원하심을 간구했습니다. 시편 50:15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하신 말씀을 잊지 맙시다.

3.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와 전쟁이라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응답을 주심

A. 15절에 "야하시엘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와 말씀에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하셨습니다.

18-19절에 이 같은 기도 응답에 여호사밧왕이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아직 전쟁의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었지만 성령으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20절에서 여호사밧왕은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외쳤는데 지난 날 아합왕의 유인을 받을 때 참된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다가 패전은 물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사실과 모압 연합군의 침공을 받음으로 선지자가 성령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자신과 백성에게 애써 일깨우는 모습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B. 여호와와 심판 내용 - 신명기 2:9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하셨고 19절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하심으로 출애굽 후 지친 이스라엘이 멀리 돌러서 그들을 해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쳐들어온 것은 유다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배은망덕할 뿐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는 악행이었습니다.

잠언 17:13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하신 말씀을 명심합시다. 역대하 20:22-24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서로 치게 하셨는데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족을 전멸시키고 암몬과 모압군이 서로 적대하여 피차 죽이게 하심으로 피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찍이 사무엘상 17:47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하신 말씀이 적중된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여호사밧 왕의 실수로 저주받은 아람왕의 꾀에 빠져 아람과의 전쟁에 참패당하여 국력이 허약해진 틈을 타서 유다를 치러 올라왔던 모압, 암몬, 세일족은 스스로 죽을 자리를 찾아 온 것이 됐고 차제에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은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간구했기 때문에 무혈승리(無血勝利)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역대하 18:29-30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아람과 전쟁하러 출전할 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가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니 왕은 왕복을 입고 출정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아람왕이 병거장관들에게 이미 명하기를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했기 때문에 아합왕이 음흉하게 사돈인 유다왕 여호사밧을 죽게 하면서까지 자기는 살겠다고 머리를 썼으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왕은 살리시고 아합은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그날 전사했으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확증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현상이 오늘 한반도에서도 재현되고 있음을 직시 하면서 2차대전 이후 남북이 양립되고 북한은 끊임없이 적화통일의 남침 야욕으로 6.25 불법 남침에다 KAL기 폭파사건과 버마 아웅산 폭파로 대통령을 수행했던 장관들을 죽였고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으로 UN군을 참살한 것과 금년에는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켜 46명의 꽃다운 해군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도발로 얼핏 하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북땅 신의주와 선천은 성도들이 많아 제2의 예루살렘이라 했는데 구 소련의 스탈린이 보낸 김일성이 공산화 정책으로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라고 주장하며 교회당을 빼앗아 공장으로 만들며 교역자들과 믿음 좋은 성도들을 공개 처형하거나 탄광촌에 보내어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남침기간에도 370여명의 성직자들을 총살 또는 수족을 묶어 우물에 거꾸로 빠뜨려 죽게 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SATAN)이요 적그리스도(ANTI-CHRIST)가 아

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문점에서 UN감시단과 남북이 마주 앉아 평화를 의논하자면서 그 날 동해안으로 간첩공비를 침투시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게 했을 때 여섯 살 난 이승복 군이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했다고 총살시킨 만행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9:4-9에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나 그 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 하거늘 네 처소는 개울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개울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 하느니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하셨으니 북한은 이미 하나님의 재판으로 형벌의 심판이 진행 중인데도 요즈음 친북성향의 정치인들과 그룹들도 있는가 하면 좌경화된 법조인들과 거짓된 선동에 속고 있는 전교조들은 남남갈등을 조장하며 국론분열을 획책(劃策)하므로 이적(利敵)행위를 계속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의 국적(國籍)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싶다는 슬회(述懷)를 들을 적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현실이 염려스럽습니다.

과거 정부들이 북한에 거금의 달러를 넘겨 줄 때 국민의 동의도 국회의 인준절차도 없이 신나게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연평해전과 지난 3월 천안호 침몰과 각종 미사일로 남한을 불바다 만들겠다는 위협뿐이라면 친북세력들도 그들의 거짓말 속임수에 분별없이 놀아난 것을 대오각성(大悟覺醒)하고 호국 안병질서를 위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위민봉사생활(爲民奉仕生活)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자신은 물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북한과 세계를 살리는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상선벌악(賞善罰惡)의 원리를 따라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CTS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880 하와이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	~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담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방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서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서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9월 9일 개강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프로 골프 선수 지망생 모집

- 현재 타수가 보기 플레이(90타)이하
 - 대상 : 7세~11세 (1~2명)
 - 코리아타운내 픽업가능
 - 문의 : 310.598.0746/mr.jacob601@hotmail.com
- 최 제이콥 (주니어 티칭 전문)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한국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서울 국제성시화대회 미주 대표 단장의 사역을 잘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이 글을 씁니다. 이번 서울 국제성시화대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명성교회 그리고 사랑의교회 방문과 임진각 예배 등 여러 큰 행사들이 있으므로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장이 미주 대표단장을 맡아야 한다는 여러 목사님들의 간절한 청원에 여러 차례 고사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의 마음으로 마지막에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미주에서만 125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참가하여 성시화대회 후 계속되는 성시 투어 프로그램과 함께 행하는 일이라, 관광버스 여러 대를 타고 함께 이동하는 불편한(?) 일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허기진 배를 해장국으로 채우고 월미도에 있는 이민사 박물관 관람을 거쳐 인천 내리감리교회를 방문하여 122년이나 된 건 역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초대 선교사이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91년에 세운 교회로 미주 하와이 최초 이민자, 여자와 어린이 포함 102명 가운데 56명이 이 교회 성도였습니다. 교회에서 대접하는 점심 식사를 한 후 부평 순복음교회의 '한국선교 역사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한 교회가 4층짜리 역사박물관을 세워 한국 기독교의 과거 증거들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열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오전예배에는 2013년 국제성시화대회를 위해 전 세계와 한국 각지에서 모인 2013명의 여성 합창단의 메시야

기념 공연도 함께 하여 감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명성교회로 옮겨 세계에서 모인 분들과 함께 환영 리셉션을 갖고 식사 후 저녁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일인 수요일에도 오전과 오후에 각각 1만 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대단한 한국 교회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남가주 출신인 오정현 목사님의 초청으로 건축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한국 각 지역과 전 세계에서 모인 성시화대회 참석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법원 청사의 넓고 위용 있는 건물의 바로 길 건너편에 지어지고 있는 사랑의 교회당은 땅값을 제외한 총공사비만 약 1천4백억원, 미화 1억달러가 넘어서 지금 서울에 지어지고 있는 백층 건물보다 더 깊게 파고, 서초 지하철거과는 교회로 직접 통하게 되어 있으며, 대법원의 아름다운 정원을 위에서 더 잘 내려다볼 수 있는 현대식의 특별한 건물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주변에 있는 봉은사라는 유명한 사찰로부터 시작하여 불신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소망 검사도 통과하고 이제 11월 30일 입당을 위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사말을 한 성시화 공동 총재, 전 대검부장검사 출신 전용태 장로님이 표현한대로 한국의 왕 마귀들이 역사하는 대법원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중보기도하는 파수꾼 같은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을 들으며, 한국 교회의 미래를 보는 듯했습니다.

물론 지금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교회들의 헌신이 더 많고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순교의 희생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와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와 같이 큰일을 행할 수 있는 대형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미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땀과 눈물로 준비하는 교회의 몫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참배하고 북한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 오두산 통일 전망대와 임진각을 방문하여 늦은 밤까지 촛불 예배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북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우리 한국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 밖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만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샬롬!

"하나님은 어디에?"



박 광철 목사
조이헬로쉽교회

유럽 여러 나라에서 무신론자 교회가 번창합니다. 그들은 일요일에 모여서 일반 노래를 부르고, 구제와 자존감 등의 다양한 주제의 설교를 듣고, 교제와 무료 음식을 즐깁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 없는 회중입니다. 회원들은 거기 있는 것이 편하고 즐겁다고 합니다. A. W. Tozer 박사의 말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과거에 속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여러 교회에서도 그들의 메시지와 사역에서 예수님을 밀

어내고 있어 보이는 것이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 대신에 적극적인 사고, 가정 생활과 오락물이 정규 예배에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자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 12:2). 이런 새로운 형태의 무신론 예배를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 삶과 예배에 중심이 되시게 하십시오.

Three-Level English Education

English Beginning Level (초급영어 25회)

▷Do you like a red jacket?
당신은 레드 재킷을 좋아하시나요?
▷No, I don't like it.
아니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What color do you like?
어떤 색을 좋아하시나요?
▷I like the blue jacket.
나는 블루 재킷을 좋아합니다.
▷Does your sister like a black skirt?
당신의 누나는 블랙 스커트를 좋아합니까?
▷No, she doesn't like it.
아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What color does she like?
그녀는 무슨 색을 좋아합니까?
▷She likes the grey skirt.
그녀는 회색 스커트를 좋아합니다.
▷Does your father like hot days?
당신 아버지는 더운 날씨를 좋아합니까?
▷No, he doesn't like hot days.
아니요, 저의 아버지는 더운 날씨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He likes cold days.
추운 날씨를 좋아하십니다.

English Intermediate Level (중급영어 25회)

In Jerusalem during the Pass-over many people put their faith in Jesus, because they saw him work miracles. But Jesus knew what was in their hearts, and he would not let them have power over him. No one had to tell him what people were like. For he already knew who they were.

유월절 기간 중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셨다. 아무도 그분에게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그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English High Level (고급영어 25회)

The truths cannot be inferior to our minds, since our minds are subject to them. Therefore, these truths must be superior to our mutable minds. What-ever superior to the mutable is immutable. Therefore, there is an immutable Absolute Mind, which is the source of these immutable truths.

진리는 우리들의 마음보다 아래에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진리를 따르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진리들은 우리의 변화가 쉬운 마음보다 더욱 위에 있어야만 한다. 변하는 것 훨씬 위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절대 마음이 있는데, 그건 바로 불변의 진리들의 원천이다.
<어거스틴의 어록 중에서>
아메리칸침례대학 배호성 교수 자료제공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 대회

장애우 사랑교회에서 1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찬송 경연을 엮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 봉사, 마음, 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06 S. Bonnie Brae St. L.A., CA90057

1차 찬양대회:
2013년 6월15일 토요일 오전10시
2차 찬양대회:
2013년 12월21일 토요일 오전10시

그랜드 파크 양로병원
Grand Park Convalescent Hospital
2312 W. 8th St. Los Angeles, CA, 90057

부활절 예배:
2013년3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추수감사절예배:
2013년11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성탄절 예배:
2013년12월20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 봉사자들을 구합니다 ▶▶▶

협찬

남가주 교회협의회, 남가주 한인 목사회, 영애 사랑교회, 믿음의 은사를 전하는 선교교회, 데이빗 백 병회사 그룹, 미동원 변호사 그룹, 거주 임로호텔, Lahenco, Inc, 세밀리 저동터, 남가주 합회도도단체,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 사랑교회 T. 213-705-0404 F. 213-251-8930 P.O.Box 742017 LA., CA90004



클래어몬트 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과정

Doctor of Ministry (D.Min.)
Practical Theology of Healing, Reconciliation and Transformation in Korean Contexts

클래어몬트 신학대학원은 미국에서 최초로 목회학 박사과정을 만들고 목회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신학대학교입니다. 또한 클래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은 미국 교육부의 대학학력인증기관인 "서부대학기관협의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 Colleges)와 미국과 캐나다의 신학대학교의 공식학력을 인증하는 기구인 "북미신학대학교협의회"(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로부터 여러 가지 심사와 검증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학력인증을 받은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신학대학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목회학박사 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표적인 두 곳의 학력인증 교육기관에서 학력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클래어몬트 신학대학교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은 그 학사과정, 교수진,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적인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클래어몬트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은 통합적 상황분석을 강조함으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속에서의 개인에 대한 이해, 또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학위 과정은 학생들에게 갈등과 치유에 대한 비평적이며 조직적인 이해, 이론과 실천의 접착점에 대한 비평적 고찰, 임상과 신학의 통합된 기술과 능력을 얻도록 도울 것입니다.

| 입학설명회 |

- ▶ 날짜 :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
- ▶ 장소 :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Haddon Conference Room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11
- ▶ 문의 : 이효주목사 koreandmin@cst.edu/
973-713-3009

| 입학원서 마감일 |

- ▶ 2014년 1월 입학 : 2013년 9월 1일까지
 - ▶ 2014년 5월 입학 : 2014년 2월 1일까지
- 입학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을 경우, 개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학요건 |

- M.Div. 학위 혹은 동등학위 소지자 (동등학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학교 웹사이트 참고) <http://media.cst.edu/uploads/genericfile/korean-d-min-application-instruction.pdf>
- 각 학위성적(GPA)3.25 이상 선호
- M.Div. 학위나 동등학위 취득후 3년 이상의 full-time 목회경험
- 본 과정은 한인교수가 강의하거나 미국인교수가 한인 교수와 함께 강의하기 때문에 토플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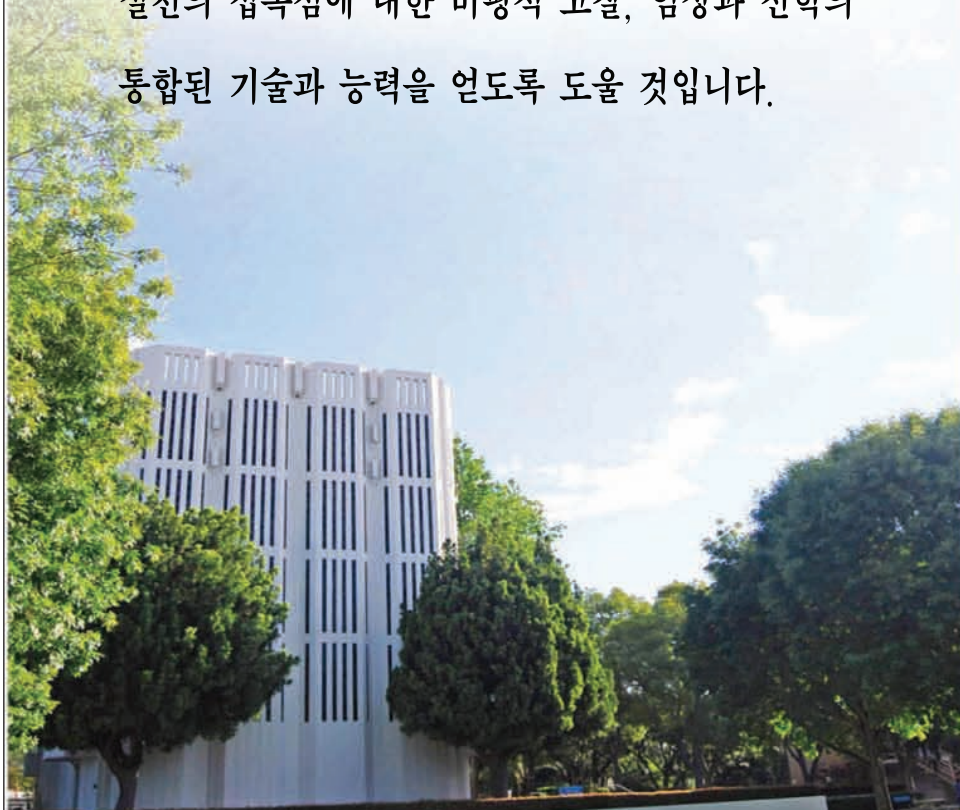
- 올해부터 목회학박사 학점과 이수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 학점: 32학점=> 28학점
 - 이수기간 : 5학기(2년 반)=>3학기(1년 반)
- 수업료: 2014년 여름부터 학점당 \$715 -> \$600
- 미국과 한국으로 오가는 모든 여행비용은 학생들이 각자 부담
- 한국어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는 학과과정을 마친 후 교단에서 수여하는 "목회최고지도자 과정" 증서를 받습니다.
- 아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online 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http://www.cst.edu/admission/apply-now>

For More Information - www.cst.edu

- 이효주 목사 (Associate Director)
koreandmin@cst.edu / Tel. 1-973-713-3009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내가 노력했으니 여기까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가수, 뮤지컬 배우, 작가까지 1인 3역, CCM 가수 소향 인터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거위인지, 독수리인지 모르는 것처럼 선뜻 내딛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날개가 있으니 이런 존재이니... 뛰어라’, 그 날을 꿈꾸며 자기 꿈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곡이에요.”

CCM가수 소향(35·본명 김소향)은 이달초 발매한 디지털 싱글 앨범 Someday(하늘을 날다)에 담은 메시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는 가수에서 뮤지컬 배우로, 판타지 소설 작가로 새롭게 ‘날고 있는’ 그녀가 크리스천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향해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가 아닐까.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여자 주인공인 마리아 역으로 캐스팅돼 대학로에서 뮤지컬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소향을 19일 인터뷰했다. 먼저 처음 뮤지컬 배우로 참여하는 소감을

물으니 그녀는 “일단은 많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소향은 “연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노래만 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연기가 참 어렵구나 느꼈다”며 “노래 부른다는 개념보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연기를 한다는 개념으로 해야 하는 거라 많이 다른 세계였다”고 했다. 그러나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상 해보고 싶었던 거였다”고 말했다.

이날 연습 후에도 집에 들어가 혼자 연습을 해야 한다고 했다. 거의 매일 모여서 연습을 해야 하는데 미주 밀알선교단 공연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3주나 빠져야 하니, 개인 연습이 더 필요한 터였다. 쉴 새 없는 일정이었다.

최근에도 뉴욕에서 한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현지 NBC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다시 또 미국행이다. 또 ‘하늘을 날다.’

첫 대중음악을 일반인들에게 선보인 소향

오래전 부터 기도로 준비

이 앨범은 CCM이 아닌 일반 대중 음악으로 발매된 첫 앨범이었다. 소향은 “사실은 오래 전부터 기도하고 생각해왔던 부분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이 돼서 교회 안에서만 듣고 사실 거기서 사실 끝이 났잖아요. 이쪽(대중가요)에 와서 보니 CCM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라고 전했다. 실제 소향은 지난해 대중적 사랑을 받았던 MBC 예능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2’ 출연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CCM가수 소향’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소향은 “CCM의 진정한 의미가 교회와 세상을 연결해 주는 다리인데 그 역할이 퇴색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금의 제 캐릭터 자체가 CCM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향’을 검색하면 ‘대한민국의 CCM 가수’, ‘CCM 밴드 포스트 보컬’ 등이 먼저 나오니 소향은 “제 역할이 그것인 것 같아요. CCM이 뭔지,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통로가 아닌가 해요”라고 했다.

CCM으로 장르를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소향은 “CCM이라는 처음 형태가 이런 거였거든요. 사람들에게 은유적으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게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었거든요. 이것이 다만 이름만 바뀐 것뿐이죠. 그 안에 의미는 그대로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로 우뚝 선 소향이지만, 작고 연약해 보이는 체구의 그녀에게 그 일이 힘에 겹치는 않을지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다.

기도제목물 물으니 “건강했으면 좋겠다”며 “뭐든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매순간 봤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가고 그 사랑에 눈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요한계시록을 기본 스토리로 한 판타지 소설 ‘크리스탈 캐슬’ 1권, 현재

4권까지 집필을 마쳤고 7~8권까지 퍼널 예정이라고 전했다.

요한계시록을 기본 스토리로 한 판타지 소설 ‘크리스탈 캐슬’ 1권, 현재 4권까지 집필을 마쳤고 7~8권까지 퍼널 예정이라고 전했다.

책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었다. 지난 9월 소향이 처음 낸 책은 ‘크리스탈 캐슬’이라는 제목의 ‘판타지 소설’이었다.

소향은 “오랫동안 꿈을 꿔왔던 거예요. 기본 스토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전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잘 펼쳐려고 하지 않는 책이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데에는 펼쳐서 보라는 것일 텐데... 그 안에 분명히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 모두가 복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복 받을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마지막 성도들에게 얘기해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향은 “소설로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영화로 만들 생각을 했다”며 “영화를 보듯이 썼다”고 했다. 자신이 먼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고 영화를 묘사하는 식으로 그렸으며 나중에는 영화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향은 “4년 동안 4권까지 마치고 5번째 쓰고 있다”며 “시리즈로 7~8권까지 낼 생각”이라고 했다.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일기도 많이 쓰고 평소 묵상도 많이 메모한다는 그녀에게 평소 즐겨 읽는 책을 물어보았다.

소향은 C.S 루이스의 책은 거의 다 읽었다고 했다. ‘고통의 문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순전한 기독교’ 등이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모략’(달라스 윌라드), ‘십자가의 도’(제시펜 루이스), ‘부흥’(마틴 로이드 존스) 등을 꼽았다.

일반 소설책으로는 “이문열의 삼국지를 정말 재밌게 세 번을 읽었다”고 답했다. ‘심심할 때 꺼내서 하나씩 볼’ 정도로 좋아하는 책이라고 웃으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오상기 기자

▶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라 불리며 대중에게도 사랑을 받는 소향이 최근 디지털 싱글 앨범 'Brand New'를 발매해 '하늘을 날다'는 곡을 선보였다.

초대합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후 · 원 · 의 · 밤 ·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개교 제 36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후원의 밤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21세기 이민 목회 현장과 복합 문화사회, 그리고 세계선교 현장에 이골 우수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배출하기 위한 영적 산실(産室)로서 본교가 발돋움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미국 내 한인 명문 신학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민 사회와 교회와의 협력관계 구축과 지속적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교 후원의 밤 행사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정과 성가시는 교회와 하시는 사역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기의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래 교회와 선교 현장의 희망입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2013년 11월 18일(월), 오후 6:30
장소	남가주동신교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680-9556~7
순서	1부 - 환영인사 및 감사예배 2부 - 식사 3부 - 후원의 밤 행사
약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a.edu

라성빌라델비아 교회 4대 담임 이영목사 취임예배



라성빌라델비아 교회 제4대 이영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가 지난 27일 열렸다.

라성빌라델비아 교회가 제 4대 목회자로 이영 목사(43)를 공식 추대했다. 지난 27일(일) 라성빌라델비아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담임목사 취임예배는 조천일 목사의 사회로 기도, 이무형 목사(대만 성안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왕하10장 15-17절을 본문으로 '예후의 열심'이란 제목에서 이무형 목사는 "하나님은 신, 구약시대나 지금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열심인 열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신다"면서 "모세도 바울도 열정의 사람이었다"고 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짝사랑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며 "예수님도 너를 핍박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목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듯 짝사랑의 열정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은 짝사랑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며 말씀을 맺었다. 권면을 전한 배효식 목사는 라성빌라델비아교회가 과거 전 미주 8대교회의 역사를 새로운 담임목사와 함께 써나갈 바란다고 말했다.

고 전하면서 "새롭게 취임하는 이영 목사가 4복음서에 나타난 영적 지도자로서의 4가지 리더십인 '사랑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 청지기 리더십, 목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날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했다. 이어 조천일 목사가 교회 헌법에 따라 이영 목사가 라성빌라델비아교회에 제 4대 목사가 된 것을 공포했다. 격려사를 전한 이동규 목사는 "하나님께서 연단한 종을 통해서 큰 복음의 역사를 써나가실 것"이라며 "라성빌라델비아교회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했다. 축사를 전한 이장배목사는 "계시록에 큰 축복을 받았던 빌라델비아교회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았다"며 "적은 수라도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교회가 됨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다"고 전했다. 담례사를 전한 이영 담임목사는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늘의 큰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겠다며 포부를 다졌다. 이지는 기자

효사랑선교회 무료 시민권 교실 오픈



효사랑선교회 대표 김영찬 목사(왼쪽)와 시민권 교실 강사로 나서서 김성미 씨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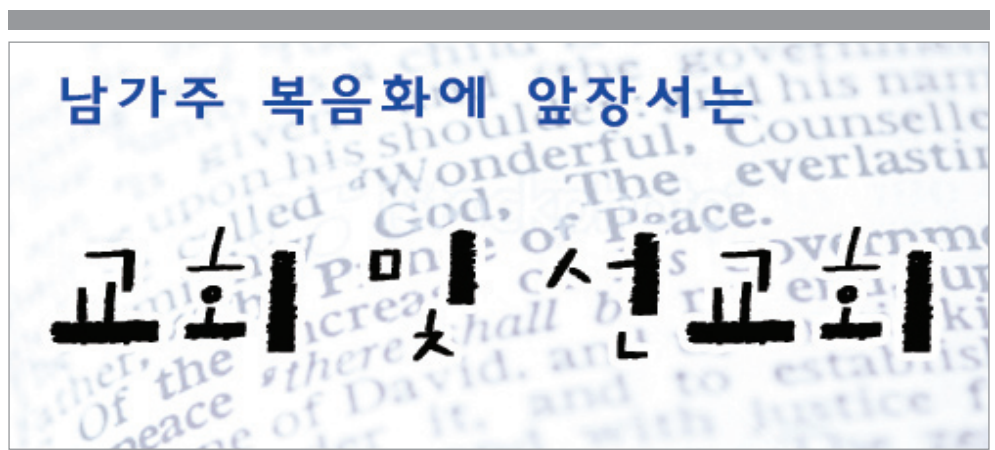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가 커뮤니티 봉사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초부터 시민권 교실을 개설 운영한다. 기간 언어 문제 등으로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어온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과정은 관련 전문 강사들을 통해 영어를 보다 쉽게 배우고 인터뷰 요령을 익히는 등 시민권 취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마련된다. 대상은 시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등록 가능하며,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 및 저소득층을 위한 신청비 면제 프로그램도 소개해 준다. 또한 영주권을 받은 지 오래되고 노인성 정신질환이나 기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 통역사를 통한 한국어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 이밖에도 각종 소셜 업무 및 서류 통번역 업무도 도와준다. 효사랑선교회 측은 또 시민권 교실 외에 조만간 영어교실을 오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강사로는 UCLA 교육학 박사 김성미 씨가 나서며, 강의는 무료(교재 및 테이프 비용 30불 제외)로 제공된다. 수업은 오는 12월 6일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부에나 파에 위치한 효사랑선교회 사무실(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에서 열린다. 한편, 효사랑선교회 측은 개강 첫날 등록자에 한해서는 교재 및 테이프를 10불에 구입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 670-8004, (562) 833-5520 또는 이메일 hyosarangus@gmail.com로 연락하면 된다.

장애우 수익금 마련 위한 '감사 찬양음악회'

한미음악가협회(LAKMA, 단장 최승호·지휘 윤임상)와 장애우 사랑선교회는 오는 10일 오후 5시 LA한인타운에 위치한 한길교회(노진준 목사)에서 '감사찬양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평소 자선 음악회를 통해 각종 사역 단체들을 돕고 있는 LAKMA 회원들이 장애우 사랑선교회를 돕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것으로, 수익금 전액을 LA 한인타운 인근을 중심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는 장애우 사랑 선교회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LAKMA 합창단의 윤임상 교수(월드미션대 음악과)가 지휘를 맡는다. LAKMA 최승호 단장은 "이번 자선음악회를 통해 나오는 수익금을 모두 장애우 사랑선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선한 일에 많은 한인들이 함께 동참해 기쁨을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어려운 단체를 돕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음악회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714) 403-8952 혹은 장애우사랑선교회 (213) 245-4870로 하면 된다.



LA 지역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회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p>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p> <p>강진웅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말-토) 저녁 오후 7:30(화,목,금)</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 3119W 6th, LA, CA 90020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예배 저녁 8:00</p> <p>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p>
<p>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p> <p>김광삼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말-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p> <p>정우성 담임목사</p> <p>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장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p>
<p>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p> <p>김요섭 담임목사</p> <p>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p>	<p>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청년부-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p> <p>서건오 담임목사</p> <p>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c.net</p>
<p>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2:00</p> <p>성재복음선교회 은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가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p>	<p>최윤형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주일 EM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p> <p>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 사랑의교회, 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 388-2105</p>
<p>박승부 장로 1기, 2기, 3기, 4기 수료생 배움, 현재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약품이나 기구없이 손안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술</p> <p>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1543 Olympic blvd #505 LA, CA 90015 OC부활교회 (아리랑 미팅 뒤) T. (213) 381-7273 / F. (213) 605-2928</p>	<p>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EM예배 오전 10:00</p> <p>조인수 담임목사</p> <p>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의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너전 전반) 음식 보조 푸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p> <p>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김세환 담임목사</p> <p>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p>
<p>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p> <p>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p>	<p>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6:00(토)</p> <p>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의가정모임, 성경학교이노니, 만민제사장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말-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대표 김갑선 목사 부서 : Naturo pathy Clinic(말-금) 전료문의 213) 505-7067</p> <p>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 친, 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간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p> <p>충현선교회 벨리서(Calling), 고지교(Healing), 기르메(Maturing), 왓슨(entraining) 5005 Eder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강지원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해가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평일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p> <p>김기섭 담임목사</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혼이탈자를 섬기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 930-0011, (323) 935-0011 / www.LASarung.com</p>

교회미션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혜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 오전 8:00
금요일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헌 목사, 백석영 목사
세미나 및 수양관 사용
여러문의 환영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 (714) 932-8993, (760) 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창신부부 오전 11: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여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EM 1부 9:45/ 2부 11:45
중/고등부 오전 11:45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대홍장로교회
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문명(通)하여 민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부
5부예배 오후 3:00(EM) 청년부

장애우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오전 7:00(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일일예배 오전 5:30(화-토)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새교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세리투스체)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세리투스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밸리체)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다우니 체)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밸리체)

최희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쉽)
오후 12:00(번영)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지하에서 지상으로...하나님의 은혜 덕분



광염교회 새성전 입당 감사예배



광염교회가 새성전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입당 감사예배를 드리고 새출발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27일(일) 오전 11시에 정우성 목사 예배에 참석한 축하객과 함께 새성전을 허락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렸다.

이날 예배는 자유자 사모(미주 한국국악 협회 회장)의 특별찬양과 Rudy Cruz(Vision Urbana Church) 목사 and 정도량 목사(러시아 신학대학대학원장)의 축사, 권혁찬 집사의 축사, 이인미 전도사(문화선교원 시전대

표)의 축사, 이영수 장로의 성경봉독, 정우성 목사의 설교, 송병철 목사(에양선교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축사를 전한 정도량 목사는 "지난 3년 반 동안 지하에 있으면서, 이제 지상으로 교회가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해져서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는다"고 말했다.

'주님의 세우신 희망이 있는 교회'(마 16:13-18)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정우성 목사는 "광염교회는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며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목회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 '오바마케어 대안 설명회'



오는 12일 유니온헬스케어그룹에서

목회자 무료 건강검진, 건강세미나 및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대안 설명회가 오는 11월 12일(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유니온헬스케어그룹(1555 W Olympic Blvd., LA, CA 90015)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유니온종합병원과 크리스천헬스케어(CHM) 한인지원국 공동주최, 남가주 교협과 풀러한인M.Div.동문회 후원, 세라노 종합안과병원의 협찬으로 열리며, 무료건강검진에서는 근전도 검사, 신체균형 검사가 있고 피검사를 실제로 할 수 있으며, 건강세미나 주내용은 현대인의 질환과 질병의 원인, 신체의 이해, 현대병에 대한 대처와 관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 설명회는 크리스천헬스케어 한인지원국에서 주관 하에 열리게 된다.

또한 행사 당일 검공 추천을 통해 300-500 달러 상당의 피검사,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이 주어지며 유니온병원, 크리스천헬스케어한인지원국, 풀러한인 동문회의 재정 후원으로 50달러 상당의 피검사를 남가주지역 목회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40명에게 무료로 펼쳐진다. 이밖에 세라노 종합안과병원의 후원으로 10명의 목회자에게 무료 안과 검안 서비스가 진행된다.

2일 오전에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CHM한인지원국 스티브 정 디렉터는 "건강보험의 대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티나 정 사무국장은 "목회자 분들이 건강해야 성도 분들이 건강할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많이 참석하셔서 건강을 챙기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213)255-1725(남가주교협 양경선 목사) (323)404-3147(박세헌 목사) (310)749-9248(유니온종합병원) (213)842-3906(스티브 정)

>> 기사 1면으로부터 받음

이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물들을 예를 들어, 리더십의 성공과 실패가 지식·전략·기술·경험에 대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 첫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아질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의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으며 나이도 많았다. 그리고 계대를 이어갈 아들도 없었다.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마음가짐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도 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기다림 동안, 아브라함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더욱 강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묵상 대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묵상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의 중심에 둘수록, 그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더욱 강력하게 확신하게 됐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좌절과 절망의 반복이 아닌, 용기와 희망을 준다.

두번째의 인물은 요셉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난과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요셉은 어떠한가? 그가 이집트 왕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창세기 39장은,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요셉을 움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는 하나님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유혹을 거절했다. 그의 마음은 수평적인 만족이 아니고, 수직적인 예배로 인해 결정됐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도덕한 일을 생각할 수 없었다. 세상의 일시적인 만족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사로잡았기에 그는 마음에 즉각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다.

세번째로 모세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는 불에 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있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선택하셨고, 이들을 포로된 상태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구원에 대한 의지나 희망이 없었다. 출애굽기 3, 4장에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기록돼 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명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간단하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낼 만한 이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다. 이집트에서 자란 그의 배경 지식과 모든 교육이 이 시점에서 모세를 돕지 못했다. 그의 마음이 두려움에 놀려 있었기 때문이다.

>> 11면으로 이어짐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의 의미(9)

Hellenism과 Judaism에 대한 오해들

12) 헬레니즘은 개인주의적인가?

<10월 24일자 11면으로부터 내용 이어짐>

(3) 소피스트들의 경우

이와 같이 사회 또는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시하는 사상은 심지어 개인주의적인 특색이 강한 소피스트에게서도 예외가 아니다. 소피스트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프로타고라스인데, 그 역시 폴리스를 떠나서 인간적인 삶은 가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의 이해가 개인의 이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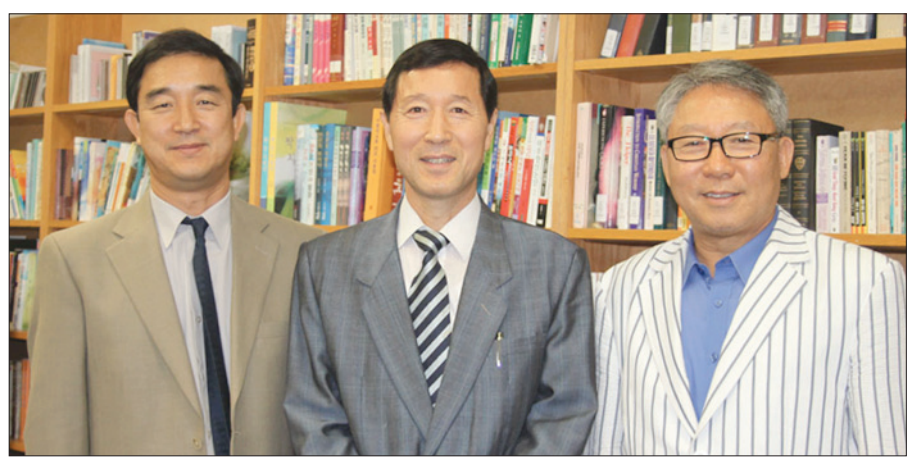
서승원 목사

다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플라톤의 대화록 프로타고라스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폴리스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급진적인 사상 때문에 소피스트들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냉대를 받았는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데 진력하였다. 소피스트들에게 적대적이었던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고 있다면 그의 묘사를 믿어도 좋을 것이다.

<계속>

목회자들 모여 봉사·설교 통해 훈련되고 동질감 생겨

원호프처처서 영성·비전·사역 회복 위해 무임 목회자들 모였다



(왼쪽부터)김수일·남승우·김영찬 목사

사역을 쉬고 있거나 사역지가 없는 목회자를 위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있어 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부에나파에 위치한 원호프처처(ONE HOPE CHURCH)는 목회자의 영성회복 △비전회복 △사역회복을 위해 올해 초에 탄생해, 현재 남승우 목사를 담임으로 목회자들이 참여해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교회는 낙담하고 지친 목회자를 도와 세우고, 파송하며, 작은 교회와 선교사를 돕고 협력하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를 위해 목회자들이 하나 둘 모여 이제는 5-6명의 사역자들이 참여해 기도과 물질과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기에 애쓰고 있다. 개교회주의를 떠나 하나님나라를 생각하며 다시 사랑감에 불타는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는 교회의 중추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을 재부장 시키는 포스트 신학교 같은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교회 담임인 남승우 목사, 김수일 목사와 김영찬 목사를 만나봤다.

-교회 소개를 한다면.

무임 목회자들이 주일에 다른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할 수 있는 사역을 하자고 뜻을 모아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다. 주일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있으며, 오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되 오후에 무임 목회자들이 모이고 있다. 여성 목회자들도 계시고 교역자이면 누구에게든지 문이 열려 있다.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이지만 일반 성도들도 참여할 수 있다.

설립 목적은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를 돕고, 재정적으로 헌금하고, 인적자원으로 헌신하고자 세워졌다. 얼마 전에 한 목회자는 타코마참빛교회로 부임하게 돼 11월 3일에 우리 목회자들이 격려자 취임예배에 가기로 해 은혜로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현재 교회 현황은.

목회자 가정이 6가족, 선교사 가정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설교는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담임 목사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예정이며, 사역자 전체

가 무임으로 봉사하고 있다. 교회 궁극적인 목표는 사역을 중단하신 분들이 와서 영성과 비전을 회복해서 새로운 사역지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현재 미약하지만 감옥 사역, 양로원 사역, 효사랑선교회를 후원하고 있다. 사역자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비전을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된다. 사모님들도 서로 아픔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고무적이다.

-목회자들이 모이면서 이견으로 인해 부딪힘은 없는지.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내규를 만들고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서로 협력하고 어려움 없이 잘해왔다. 서로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 온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춰 서로 보듬어주며 오고 있다.

-교역자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평신도 예배와 다른 것은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역자들이기 때문에 평신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깝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열정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과 채찍질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게 된다. 또 그동안 소속감이 없는 것에 대한 힘들이 있었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니 소속감과 동질감이 생기고, 특히 사모님들이 좋아한다. 무임 목회자들이 많은데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교회가 세워진 것 같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평신도처럼 봉사하고 설교도 하고 하면서 훈련하는 하나의 좋은 장이 되고 있다.

특히 목회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좋다. 바람이 있다면 교회 속속이 없고 정착이 안되거나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한다.

>ONE HOPE CHURCH 주소 :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문의: (562)569-1189

>> 기사 10면으로부터 받음

네번째로 베드로와 바울을 보자. 바울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복음의 핵심 진리를 타협하려고 했던 베드로를 질책한다.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와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외식을 했다. 이는 그의 지식, 경험 또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수직적인 신념보다 수평적인 두려움에 의해 움직였기 때문이다.

폴 트립 박사는 "각각의 예에서 지도자들의 내면의 조건이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이 마음가짐은 사역에서 불가피한 요소이다. 같은 훈련을 받고, 같은 경험과 기술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비슷한 방식으로 지역 교회 목회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은 위험하다. 목회자로서 두 사람의 목회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잠재성은 사역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것들의 종류만큼 매우 넓다"고 했다.

이어 "목회 사역이 항상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사랑으로 이뤄진다고 보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사역자들이 사람들에게 대해 자연스럽게 오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은 매우 단순한 생각이다.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목회자들이 성적인 유혹,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시기, 교만, 분노, 하나님에 대한 의심, 쓴뿌리, 맹신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다.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O.C./얼바인 지역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받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구원하여 제자로세우는교회 13000 San Antonio Dr.,Norwalk,CA9065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열매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베델한인교회 우리기독교인이내기 크리스천이다.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사랑의방주교회 믿음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9262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받은 우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CA92604

얼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열방사랑선교센터 믿음과 기도와 성령강림으로 굳어진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랑과 생명의 사랑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CA92683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213.327.4710



HQ헬스, HQ산삼 대표
최창수박사가 주선한
한국 동아일보 1면 Top
커버 스토리 -
미국 산삼 특별 취재 기행



미국 야생 산삼

제가 한 뿌리 한 뿌리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특가세일!

미국 야생산삼

1 파운드 = \$1,000

(특대 4뿌리+ 대+ 중 사이즈 산삼 - 454그램)

+ 특별 선물

구연산, 소금(\$120상당) 무료 증정

작년 가격보다 50% 이하의 파격적 가격



300년된 산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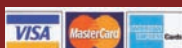
미국 야생산삼 도매가 최대 유통회사로서 산삼의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 선언을 주도한 정직한 기업입니다.

한국 동아일보가 파견한 특별 취재팀과 함께 미국 산삼의 대량 서식지들을 탐사하면서 심마니들과 딜러들의 채취와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인들의 미국 산삼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고 한국에서의 미국 산삼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8일 동안 미국 동부 아팔라치안 산맥의 산삼 서식지 중 NY, VA, NC 주 등 여러 주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왼쪽 맨 밑의 사진은 수많은 심마니들과 함께 채취한 야생산삼들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Life



힐송, 청소년 워십시리즈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된 ‘암흑가 갱’의 실화

‘교회 다니는 여자랑 사랑에 빠졌어요’ 영화 개봉

“교회 다니는 여자랑 사랑에 빠졌어요”라는 영화가 10월 18일 개봉해 화제다.

‘I’m in Love with a Church Girl’이란 제목의 영화는 마약관 매상이었던 켈리 몰리나의 실화를 담고 있다. 그는 교회에 다니는 여성을 만나 교제하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목회자가 된다.

이 영화에는 거친 암흑가의 갱이 교회에 출석하며 겪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영화 포스터

지 모두 담겨 있다. 빈센트 패스토어, 토비 맥, 티-본, 마이클 매드슨 등이 캐스팅됐다.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 스티븐 볼드윈은 “이 영화는 할머니 세대들이 보아 왔던 기독교 영화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라고 언급한 다음, “내가 할리우드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다른 영화들과 겨루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매우 우수하다. (이런 영화를 선보이게 돼) 아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스티븐 볼드윈은 한국인

들에겐 ‘유주얼 서스펙트’, ‘고인돌 가족 2’ 등으로 잘 알려진 배우지만, 근 10년간 영화계에서 자취를 감추어 의문을 낳았다. 그는 9.11 테러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신앙인이 됐으며, 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투신해 왔다. 일각에서는 볼드윈이 신앙에 미쳐서 영화를 관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볼드윈은 “내년에도 신앙적 영화 2-3편에 출연할 계획이 있다”면서 “이것이 내 신앙 여정”이라고 했다. 김나래 기자

‘We Are Young & Free’ 발표



힐송처치·힐송뮤직은 거의 20년 동안 워십뮤직의 최전선에서 전 세계 프레이즈&워십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통해 가장 널리 불리는 노래들을 창작해 보급해 왔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예배와 음악에 대한 열정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매년 7월 컨퍼런스와 함께 힐송 라이브 워십 정규앨범 시리즈, 유니티드 워십 시리즈, 힐송 연주 시리즈, 힐송 어쿠스틱 채플 시리즈, 키즈 앨범 시리즈, 힐송 글로벌 프로젝트 9개국(한국어 버전 포함) 시리즈 등이 발표됐는데, 이제는 힐송뮤직의 청소년 워십(Youth Worship) 시리즈도 제작됐다.

힐송은 30년의 세월 동안 섬기고, 인도하고,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왔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예외 없이 큰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 힐송 ‘영 & 프리’가 그 사역이다. 그래서 그들은 시대를 대변하기 원한다. 힐송이 이 앨범을 통해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전 세계 교회의 청소년들의 마음을 깨우는 일이다.

12곡의 라이브 워십과 그 중 3곡이 스튜디오 버전으로 다시 녹음되어, 총 15곡의 열정과 에너지가 자유를 선포한다. 보너스 DVD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2곡의 뮤직 비디오, 2곡의 서머캠프 라이브, 그리고 가사가 곁들인 가라오케 스타일의 비디오가 포함되어 있다.

힐송뮤직은 “볼 것 많고 화려하고 풍족할 것 같은 21세기, 오늘날 청소년들에게는 그래서 더욱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아마 지금도 입시전쟁 속에서 최전방에 나가있는 군인들처럼, 쏟아지는 총알과 폭염에 지쳐 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필요하다. 이 음반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그들이 새 힘을 얻기 원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힘과 자유가 폭포수처럼 그들에게 부어지기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앨범이 또 하나의 불이 되어 한국교회의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큰 도전과 함께 방문하여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캐시 트로콜리, 2집

‘Draw ME Close’ 발표

캐시 트로콜리가 1집 ‘Tis So Sweet’에 이어 기분 좋은 탄력을 받아 2집 앨범 ‘Draw ME Close’를 발표했다.

1집에서도 말했지만,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는 게 힘들 때 궁극적으로는 마음과 영혼을 편하게 정리시켜주는(흔히 Soothing music으로 불림) 음악이 생명력이 있다는 결론이다.

허스키하면서도 음식에 무게가 있고 메시지를 풀어내는 전달력이 대단하다. 빌보드 선정 Top 20 어덜트 컨템포러리 아티스트&Top 40 송 오브 더 이어, 20개의 앨범 중 17곡의 #1 라디오 히트, 메인스트림/팝 라디오 Top10 기록, 3회의 그래미 노미네이션, 도브 2회 수상 등 캐시 트로콜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는 투나잇 쇼, 뉴욕타임스, CNN 쇼비즈, LA 타임즈, VH-1 등의 전 세계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대중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번 2집 ‘Draw me close’(주님 가까이)는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CCM, 워십송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명곡들을 캐시의 매력 있는 목소리 위에 실어놓았다.

밴드는 1집보다 더 간소화된 인플러그드의 정갈한 사운드로 피아노, 기타, 첼로 세 가지 악기로 구성했다. 내슈빌 정상 세션 피아노 카알 헤르케셀, 국내에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기



타 세션에 데이빗 클리브랜드, 첼로에는 스트링머썬의 폴 넬슨이 참여했다. 그리고 매트 바우어와 함께 캐시가 직접 프로듀싱에 참여했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에서는 캐시와 같은 아티스트를 흔히 ‘High Sought-after Artist’(많은 사람들이 찾는, 매우 인기가 높은 아티스트)라고 부르며 그렇게 소개하는데, 이러한 호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모든 세대에 다 어필하는, 영혼이 담긴 노래를 우리에게 선사하기 때문이다.

열정적으로 뛰고 춤추고 박수치고 외치며 찬양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힘을 주시는 그분을 잠잠히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이름만을 예배하고 목상할 때가 종종 있다. 이 음반 역시 그러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음반이다.

벤엘처치, 새 앨범

‘Tides’ (조수) 발표

벤엘처치의 이번 앨범 ‘Tides’(조수)는, ‘The Loft Session’(어쿠스틱 워십)과 ‘For The Sake of The World’(라이브 워십) 이후 거의 1년 만에 녹음됐다. 스튜디오 레코딩 워십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을 옮겨놓은 것과도 같은 이번 음반은, 색채가 풍부하고, 진보적이며, 항상 그려왔지만 탐구적이고, 아날로그 냄새가 나는 그림, 분위기를 받쳐주는 기타, 맥박이 뛰는 듯한 리듬이 조수와 같이 음반 위에 물결친다.

이번 앨범에 참여한 키 워십리더로는 물론 젠들하면서도 파워풀한 보컬과 영성의 브라이언 & 젠 존슨(Brian & Jenn Johnson) 부부, 그리고 빈야드 출신이지만 현재는 벤엘에서 메인 워십리더로 사역하고 있는 아메리칸 보컬 제레미 리들(Jeremy Riddle)이 있다. 솔로앨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진 윌리엄 매튜스(William Matthews), 그리고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들, 스테파니 프리젤 그렛징거(Steffany Frizzell Gretzinger), 그리고 매트 스티ントン(Matt stinton)과 헌터 탐슨(Hunter Thompson)이 있다.

신비스러운 켈틱의 분위기와 유럽 팝의 색채가 흐르는 브라이언의 첫곡 ‘Chasing You’로 시작하여 제레미 리들, 그리고 젠 존슨의 ‘I Can Feel You’가 절정을 이룬다. 이 앨범이 출



시되자마자 itunes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한 이유가 있다. 뮤지션, 워십리더, 사역의 위치에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전진해나가며 자신들의 레이스를 달려가는 이들의 모습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엄습해온다.

힐송뮤직은 “벤엘처치의 워십을 국내에 공식적으로 소개한지 벌써 4년이 되간다. 4년 동안 씨를 뿌려온 거다. 요즈음 전 세계적으로 워십뮤직의 새롭고 강한 흐름으로 가장 주목받으며 워십의 축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이제는 벤엘처치의 마니아 층이 확고할 뿐만 아니라 워십뮤직에 관여하는 사역자나 워십리더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그야말로 워십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더하여 국내에서도 캘리포니아 레딩 시티에 위치한 벤엘처치를 직접 방문하여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는 11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며,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미주 기독교미술가협회 박정근 회장 “예술적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독교미술 꽃피우려면 교계 지원 필요

인간의 회개와 찬송을 맑고 강렬하게 표현해 왔다.

신학과 음악이란 영역이 서로 접목됨으로써 하나님을 보다 깊이 만나고 찬양할 수 있듯, 신학과 미술의 만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나갈 사명이 기독교미술인들에게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한국에서뿐 아니라 미주에서도 뜻 있는 한인 기독교미술인들을 모아 기독교미술인들의 활동을 장려해오고 있다. 지난 달 말에는 그가 회장으로 이끌고 있는 미주 기독교 아티스트들의 모임인 기독교 미술가협회(Association of Christian Artist) 주최 하에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웨스턴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다. 미국 주류 커뮤니티뿐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기독교미술인 31명이 참여해 해석해 신앙의 물감으로 캔버스에 영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 34점을 선보였다. 작품 한 점 한 점에서 깊은 신앙의 내면세계와 위대한 창조자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그에 대한 찬양을 엿볼 수 있다.

2008년 이래 해마다 한 차례씩 개최된 기독교미술인협회 정기 회원전에 더해, 박정근 작가는 앞으로 한국 기독교미술인들이 교계와 힘을 합쳐 하나님의 성소에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게 하듯, 아름다운 글과 조각 그

리고 그림과 건축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전을 하나하나 조성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 남겨진 과제이자 사명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한국교회의 경우 건축물 및 조형물 제작 등에 있어 과거 20-30년 전에 비해 기독교미술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미술에 대한 교계의 이해가 부족한 탓에 신학과 미술의 경계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교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 기독교미술인들과 서로 연대하며 각종 연합활동은 물론 이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온 그는, 예술활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목회자들의 이해 부족을 꼽는다.

“우상수배의 가능성은 물론 경계돼야 하지만, 미술 자체는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 통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의 손으로 만든 형상이 인간의 우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될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과민반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화적 달란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칼뱅의 종교개혁 이후 교회 안에서 음악은 예배의 일부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반면, 미술은 경시되어 온 경향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속의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신명기 5:8)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2계명은 오늘날 보수적인 신앙인들 사이에 미술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 난처하게 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느끼고 추구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믿는 이들의 삶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화적 예술성이 보다 인정되고 도입됨으로써 기독교문화가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객체의 이해와 세계관에 충실한 기독교 작가들을 많이 배출해 내야 하고, 궁극적으로 기독교미술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궁극적으로 예술가로서의 감수성을 살리면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미술인들이 하나씩 배출되고 이들이 세상 문화 가운데 기독교 문화의 옷을 입히는 일에만 전력을 다하는 풍토가 조성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하루 빨리 도래하길 기대해본다. 정한나 기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나비의 날개에, 물고기의 비늘에, 새의 깃털에 무지개의 영광함을 아로새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름다움을 알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합니다. 따라서 예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활동의 하나이며, 삶의 한 모습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각자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서 창조의 열망과 창의력을 허용하셨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하나님의 은사에서 시작됩니다.

기독교미술협회 회장인 박정근 작가(전 총신대 교수, 사진)의 말이다.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공

부하고 총신대에서 교편을 잡은 박정근은, 1993년부터 기독교 미술인협회를 통해 기독교미술인 연합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99년에는 지금의 LA 사랑의교회가 위치한 미주성산교회 입구에 1천 스퀘어 피트 규모의 모자이크 벽화를 완성해 화제를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기독교적 영성과 회화적 예술성의 조화,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 감수성과 서구적 기법의 만남을 동시에 추구하는 예술가로 정평이 나있는 작가는, 그간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유혹, 자식을 바친 아브라함, 신랑을 기다리는 열녀, 예수님의 발을 씻는 여자, 베드로의 회개, 최후의 만찬, 부활 등 일련의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

반세기 목회한 장재효목사가 전하는 바른목회



30일 바른목회연구원 주최 하에 열린 <일일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반세기를 넘도록 오래 목회해온 노장이 전하는 바른 목회란 무엇일까? 올해로 나이 팔순을 맞이한 장재효 목사(서울성은교회 담임)가 <일일 목회자 리더십세미나>에서 주강사로 나서 자신이 쌓아온 목회 노하우를 풀어놓았다. 지난 30일 LA 한인타운의 모 호텔에서다.

이날 장재효 목사는 “목회를 함에 있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바로 돼야 한다”며 말씀을 열었다.

바른목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 그는 “목회자는 예수 그리

스도의 종이며, 스스로 복음의 제물이 되어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야말로 (목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목회의 시작은 주님과 나의 바른 관계 정립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되물어야 한다”며 목회자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던진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

이 택하시고 성령의 체험과 감동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어질 수 밖에 없는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령의 능력에 따라 목회해야

그는 또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온갖 질병에 걸린 자도 낫게 되고, 필요한 물질은 물론 사람도 붙여주시게 된다”며 인간의 능력과 알파한 지식과 지혜로는 단 한명도 전도할 수도, 구원할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양떼를 먹이라고 하셨다. 주님께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필요한 말씀도 주신다”고 했다. 장 목사는 “성령을 따라 선포된 말씀은 죄인된 인간의 심령과 골수를 쫓아내, 듣는 이들로 하여금 꼭 필요한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고, 성령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성도들로 변화되게 한다”고 강조했다.

성령에 점령 당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어야

갈5장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맺는 삶을 통해 목사의 입에서 주님과 같은 말과 행동,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회 부흥은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결과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의 부족함을 성령께 고하고 철저히 낮아지고,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주님만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며 강연을 마쳤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목회자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목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며 자신의 목회 방향을 전환하는 귀한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바른목회연구원의 원장인 장재효 목사는 내년부터 1기생을 시작으로 바른 목회를 하길 원하는 남가주 목회자를 초청해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강의를 전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성, 박기호, 방지자,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 : (213) 402-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칼라 카피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김인수 총장의 한국사 이야기

한국에서 성경을 맨 처음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김인수 목사
미주장신대 전 총장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에는 생명의 길이 제시되어 있다. 로마 가톨릭은 최근까지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고집하고 기타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평신도들에게는 성경 읽는 것이 금지되었고, 오직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어떤 선교지에 가든지 그 지방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없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된 이승훈의 북경에서의 영세로부터 80년이 지나도록 쪽북을 써서 하나 번역하지 않았다. 교리서 등만 번역하여 가르쳤을 뿐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신교는 처음부터 성경의 교회였다. 마르틴 루터가 교회 개혁을 시작한 16세기 초부터 “오직 성경만”(sola scripture) 절대적이라는 명제를 내 걸고 루터는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했고, 장로교회의 비조

인 요한 칼빈 역시 그의 모국어인 불란서 말로 성경을 번역했다. 틴데일이거나, 위클리프도 자기들의 모국어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평신도들에게 읽게 했다.

한국에서의 성경번역 역사는 선교사들의 내한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말 성경이 만주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먼저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그 사적은 다음에 기술하기로 하고, 오늘날 누가 최초로 성경을 전수 받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816년(조선조 순조 16년) 영국 군함 올체스트(Alceste)호의 선장 맥스웰(M.Maxwell)과 라이라(Lyra)호의 선장 홀(B.Hall)은 중국에 오는 영국 국왕의 사절 앤허스트(Sir J.W.Amhirst)를 천진(天津) 하구까지 호위하여 왔다. 이들은 한국의 서해안 일대를 탐사하고 해도(海圖)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당시 영국은 해양 대국으로 그 영향력을 온 세계에 뻗치고 있던 때여서 각지의 해도가 필요했다. 그들은 한국으로 향진하여 그 해 9월 서해안 군산만(群山灣) 마량진(馬梁津)에 정박하였다.

마량진 접사(僉使) 조대복(趙大福)은 문정을 위해 승선하여 한문을 사용하여 필담(筆談)으로 이 배의 국적, 도래 목적, 한문 해독 여부 등을 물었으나 의사가 소통되지 않았다. 그는 선원들로부터 서적, 지구(地球儀), 거울 등의 선물을 받고 돌아와 그들이 원하는 식량과 식수를 공급해 주었다. 조대복이 배 위에 올라갔을 때, 선장

은 그에게 한문 성경을 한 권 기증했다. 이 일이 한국인으로 맨 처음으로 성경을 손에 쥔 사건이다. 조대복은 한자 이름 그대로 ‘된 북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4천년의 유구한 우리 역사에서 맨 처음으로 성경을 손에 쥔 사람이 된 것이다. 그가 그 성경을 어떻게 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순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을 만한 실력이 못되었을 것이고, 읽지 않았다면 그 생명의 말씀에 접할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조대복이 성경을 어떻게 처분했을 가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먼저, 지금부터 약 200년 전, 이름 없는 서해안의 한 섬에 종이 많았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종이로 만든 귀한 책을 받은 조대복은 우선 한 장씩 뜯어 흠뻑을 도배하는데 쓰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아니면, 성경책이 얇은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풍년초(담배)를 말아 피우기에 적합했을 것이다. 만일 조대복이 이 한문 성경을 한 장씩 뜯어 풍년초를 말아 피웠다면, 담배 연기가 그의 폐 속으로 들어갈 때, 성경이 탄 연기도 같이 빨려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탄 연기가 조대복의 폐 속 깊이 들어갔을 것이고, 이는 앞으로 한민족이 거룩한 성경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살아 갈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다. 아무튼 조대복은 한국인으로 최초로 성경을 받은 사람으로 한국교회 역사에 그 이

름을 남겼다.

바실 홀은 영국으로 귀국한 후, 「한국 서해안 및 류큐 열도의 항해기」(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oochoo Island)를 저술하여 1818년에 출판하였다. 이 책은 하멜이 쓴 항해기와 더불어 한국을 유럽에 소개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특히 이 책에는 한국의 풍속화가 들어 있어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후에 한국에 와서 선교활동을 한 캐나다 선교사 게일(J.Gale)이 쓴 글에 보면, 라이라호의 선장 홀은 영국으로 귀환하는 도중 세인트 헬레나(St. Helena) 섬에 들러 그 섬에 유배되어 있던 나폴레옹(Napoleon)을 만났다. 그는 나폴레옹에게 조선의 사정을 얘기하고, 그가 스케치한 조선의 그림들을 보여 주었더니 흥미 있게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고 기록하였다.

한국에 주재(駐在)하는 선교사들이 내한하기 반세기 전에 선교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을 다녀갔던 선교사들이 몇 명 있다. 이들은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온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 살면서 선교 사역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내한했던 사람들로 한국교회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들이다.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목사는 프러시아계 독일인으로 의사였던 칼 귀츨라프(Karl Gützlaff)이다. 그는 1803

년 7월 독일에서 유태계 독일인으로 태어났다. 그는 독일 경건주의운동의 발상지였던 할레(Halle)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일찍이 선교사가 될 결심을 하고 준비하다, 1826년 네덜란드 선교회의 파송을 받고 동남아 자바(Java)의 바타비아(Batavia)에 1827년에 도착하였다. 그 후 그는 중국으로 떠나 1831년 요동반도를 거쳐 마카오에 이르게 되었다. 귀츨라프는 그가 마카오에 도착했던 1831년 6월, 중국 동해안과 만주를 거쳐 돌아오는 약 6개월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다녀왔다. 그는 이 여행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선교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귀츨라프가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이 선교 여행에서의 성과 때문이었다.

당시 영국 동인도회사는 군함 로드 앤허스트(Lord Amherst)라는 1천톤급의 무역선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 교역을 하기 위한 항해를 준비하였다. 이 때 이 배의 선장이었던 린제이(H.Lindsay)는 귀츨라프와 친분이 있었으므로 귀츨라프에게 통역, 선의(船醫), 선복(船牧)의 자격으로 승선해 달라고 요청 하였다. 귀츨라프는 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에 오는 첫 목사요 선교사로서 기록을 남겼다. 그가 한국에 와서 성경을 전한 일과, 주기도문을 번역한 일, 그리고 감사 씨를 주고 간 사적에 대해 다음에 상세히 기술하겠다.

(계속)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만약 누군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나는 “적절한 시기”(Timing)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열정만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물을 정해진 시간 안에 제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아무리 잘 쓴 “리포트”나 “발제물”이라 할지라도, 마감시간을 넘기게 되면 제 점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처럼 “공평성”(Fairness)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

라에서는 더더욱 늦게 제출한 과제물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어김없이 한 단계 내지는 두 단계의 감점을 줍니다. 그래야 공평한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때를 놓치고 나서 완벽한 것보다 낫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힘이 남아서 스타디움을 한 바퀴 더 돈다면, 그는 정말 “돈 사람”입니다. 더 좋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 힘을 주어진 시간 안에 다 소모했어야 합니다. 야구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평평 홈런을 날리며 몸을 풀던 선수가 정작 경기가 시작되어서는 매번 삼진 아웃만 당한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때”를 놓친 사람들은 항상 “결”이라는 아쉬움의 점미사를 남깁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냥 한번 더 시도해 볼 걸”, “좀 더 아내에게 잘 할 걸”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서 질병에 시달리고, 사업을 망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이 뒤틀리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을 현명하게 살 아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새벽예배에 열심히 출석하시던 성도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참 인자하시고 재능도 많으신 분이십니다. 멀리 출석하시는 교회가 따로 있었지만, 새벽예배만 저희 교회로 오셨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하는 일을 빨리 은퇴하고, 이 교회로

와서 열심히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토씨하나 빠지지 않고 저를 볼 때마다 똑같은 나팔을 부셨습니다. “저를 도우시려면 지금 당장 하시지, 왜 은퇴 후에 하시려고 하시나요? 그때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저를 돕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다니시는 교회에 충성하시지요!”

목구멍까지 솟아오르는 말을 다시 입 속으로 밀어 넣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이 공교롭게도 은퇴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고혈압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장례식에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았습니다.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영혼의 계절들

브루스 데머레스트 | IVP | 240쪽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위대한 여정 가운데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저자는 성경은 물론 기독교 신앙의 풍부한 전통과 오늘날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적 성장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끌고, 여정의 전체 그림을 제시하여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다윗 실록

고영길 | 홍성사 | 3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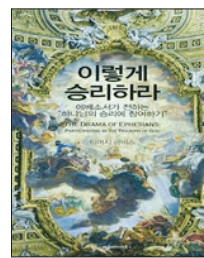
구약의 기록이 노래하는 '다윗의 일대기'. 저자는 성경의 기록을 시간 순서에 따라 엮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바이블 인 타임즈 (Bible in Times)' 시리즈로 <예수 전기>와 <바울 행전>에 이어 다윗을 주인공 삼아 사무엘·열왕기·역대기·시편에 흠뻑인 그의 깊이있는 삶을 한편의 드라마처럼 생생히 그려냈다.



이렇게 승리하라

티머시 콰비스 | 에클레시아북스 | 2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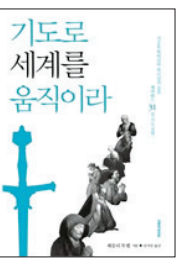
저자는 에베소서를 재발견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두신 승리라는 내러티브 축을 따르는, 드라마 성격이 강한 문서로 소개한다. 에베소서 속 바울은 교회를 초대하여, 하나님께서 악한 시대의 통치자들에게 거두신 승리를 축하하고 이 승리에 참여하라고 권하고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웨슬리 듀벨 | 생명의말씀사 | 296쪽

'기도의 사람'인 저자가 전하는 기도의 원리와 영적 부흥의 원칙을 담았다. 저자는 선교사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일화들을 풍부하게 소개하며, 성경적 기도 방법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했다. 초신자에게는 기도의 틀을, 성숙한 신자에게는 깊고 심오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REVIEW

“비극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 찾아가는 이야기”

제럴드 시처의 ‘그 후 20년’ 담은 책

<하나님의 뜻: 오늘 여기서, 그분을 위해(원제 The Will of God as a Way of Life)>로 지난 10년간 국내 10만 독자의 가슴을 울린 제럴드 시처(Gerald L. Sittser)가, '끔찍했던 비극' 이후 20년 간의 이야기들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원제 A Grace Revealed: 이상 성서유니온)>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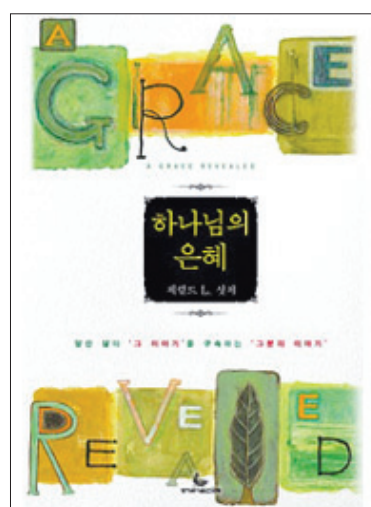
그 끔찍한 비극은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막내딸이 어느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모두 목숨을 잃은 것이다. 현재 그의 남은 세 자녀는 차례로 결혼했고, 그도 재혼했다. 그는 사고 후에 달이 가고 해가 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이 비극을 통해 하실 수 있

는 일과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방식에 비하면, 비극 자체의 역할은 실제로 덜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최악의 비극일지라도 마찬가지다. 비극은 우리를 파멸의 나락에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은혜와 구속의 이야기를 밝히 예측해줄 수도 있다. 나는 비극도 구속 이야기의 일부라고 믿기로 했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임을 신뢰하기로 했다. 아무리 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어 보일지라도 그분을 여전히 지혜롭고 선하신 주권자로 믿은 것이다. 나는 내 앞에 펼쳐질 구속의 여정을 깊이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길은 신비 속에 가려져 있었다.”

저자는 사고 직후엔 무서운 허공과 어둠 외에 아무 것도 내다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제는 20년 세월을 뒤로 하고 그때의 일을 되돌아볼 수 있다. 그동안 삶이 쉬웠다는 말은 아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단순하고 가슴 뭉클한 인간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도 이 책에 구속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를 바란다.”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속(求贖·redemption)’을 주요 테마로 삼고 있다. 저자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등장인물들’에 대해 “마치 미



하나님의 은혜 제럴드 시처 | 성서유니온선교회 | 304쪽

켈란젤로가 끝내 완성하지 못한 ‘포로상’처럼, 완성품이지만 여전히 대리석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이미 새롭고 완성된 사람이지만, 늘 그렇게 행동하거나 사고하거나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구속되었지만 아직 구속이 필요하고,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빛어지는 중이다.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작업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완성품이지만, 성령님은 이제 시작하셨을 뿐이다. 우리 앞에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 우리는 안심하고 담대히 그 미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테크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춤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겉술로 만든 발효삼상”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4층)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9파운드~25파운드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미용침

구연산 판매합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뺄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 213.924.8189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트모아)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신간

‘마지못해 나선 별난 팬’의 제멋대로 소감: CCTV 해설사

C. S. 루이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까지 알고 싶다면

최근 출간된 복있는사람의 「C. S. Lewis(복있는사람)」에 대한 정인영 선생님(양주효춘초)의 서평입니다. 정 선생님은 현재까지 번역된 루이스의 책을 모두 소장한 자칭 ‘C. S. 루이스 팬클럽 회장’이자, 어린이 독자들에게 1944-1963년 사이 루이스가 보낸 97통의 편지를 모아 엮은 <루이스가 나니아의 아이들에게(홍성사)>의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엔 3권의 C. 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전기가 있다. 루이스 자신이 쓴 <예기치 못한 기쁨(원제 Surprised by Joy)>, 제자이자 친구인 조지 세이어(George Sayer)가 쓴 <루이스와 잭(원제 Jack: a life C. S. Lewis-이상 홍성사)>, 이번에 출간된 「C. S. Lewis(복있는사람)」이다. ‘별난 천재, 마지못해 나선 예언자’라는 부칭도 있는 이 책(원제 C. S. Lewis-A Life: Eccentric Genius, Reluctant Prophet)은, 과학과 신학에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는 영국의 알리스터 맥그래스가 썼다.

세 권의 전기를 간단히 펴헤 보자. <예기치 못한 기쁨>은 거실 소파에 앉아 루이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굳이 따질 필요도 없다.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어도 괜찮다. 표정이며 말투, 대화의 분위기기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루이스가 생각을 했거나, 배경 지식이 없는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음성을 듣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또한 이 자리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루이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듣는 시간이다. 루이스 애독자로서, 루이스 전기가 100종이 나올지라도 언제나 1순위는 이 책이다.

<루이스와 잭>은 루이스의 목소리를 듣되, 문 밖에서 듣는다. 또한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 따라서 목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누구의 목소리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가끔 역량이 드러나거나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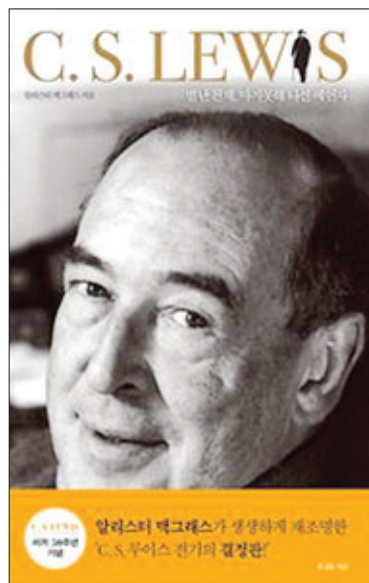
소리가 고조될 때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아채며 ‘으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표정이나 말투, 분위기를 가늠하기가 <예기치 못한 기쁨>보다 어렵다. 하지만 여전히 루이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C. S. Lewis(복있는사람)」는 루이스의 거실을 CCTV로 보는 것 같다. 루이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장면을 꼼꼼히 볼 수 있다. 게다가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장면을 멈춰놓고 자질구레한 뒷얘기도 해 주고, 때론 확대해서 볼 수도 있다. 게다가 CCTV가 수십 대라 여러 장면을 비교하는 재미도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알리스터 맥그래스에게 ‘CCTV 해설사’라는 직함을 붙여주고 싶다.

루이스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학자의 전기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다. 말을 써놓고 보니 학자들이나 쓰는 표현 같다. 내 식대로 표현하자면, 루이스나 친구들은 궁금해 하지 않지만 나같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궁금해 했을 질문을 조목조목 풀어주니 참 고맙다.

아일랜드 태생인데 왜 잉글랜드 학자로 불리는지, 트리니티 학기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루이스의 스승 커크패트릭이 28세에 교장이 되었다는 것, 옥스퍼드 학부 시절 같은 칼리지에 C. S. Lewis가 한 명 더 있었다는 사실, 책 중간에 ‘한국전쟁’이 언급된다는 것, 루이스의 무덤에 있는 글귀는 와니(루이스의 형)가 선택했다는 것, 무어 부인은 기독교에 적대적이었다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에 눈이 갔다.

그리고 정이 갔다. 왜 팬들이 아이돌그룹의 사생활까지 캐러 하고, 전에 알지 못했던 스타의 초등학교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해 하는지 이제 나도 안다. 루이스를 통해 이런 감정들이 결코 저급한 것이 아니며, 천국에서



C.S.LEWIS



왼쪽부터 <예기치 못한 기쁨>, <루이스와 잭>

완성되고 충족될 것도 알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생활을 알게 되는 날,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생활을 서로에게 전해주느라 천국은 온통 스포츠와 춤과 노래로 가득한 잔치집이 될 것이다.

“자기만이 목격한 광경을 다른 모든 영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각 영혼의 시도는 계속 성공을 거두면서도 결코 완료되지 않는 시도로서,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들로 창조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이 데이빗만이 ‘꽃뱀’이었다니, 그럼 영화 <새도우 랜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황혼에 찾아온 운명적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내었던 비운의 남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그 때 누렸던 행복의 일부이다”는 앤딩 대사의 이면에,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던 꽃뱀과 어리숙하게 코가 썬 영국 교수가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병상 결혼식을 집전했던 신부님도 병자에게 안수하러 왔다가 열떨결에 결혼예식을 집전했다. 루이스의 무리한 요구에 소속 교파의 규율

도 어기면서 말이다. ‘별난 부부, 마지못해 나선 집전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길은 두 갈래다. <새도우 랜드>보다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떨어지느냐. <인간 폐지>의 한 문장이다.

“아이들은 그런 광고에 영향 받지 않을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은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광고의 수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 수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말해 진정한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나 대서양을 단지 수백만 톤의 차가운 소금물 정도로만 생각하는 바지 입은 원숭이들에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새도우 랜드>가 다소 과장해서 만들어준 드라마에 코를 찌지 않을 두 가지 방법은 첫째, 아래로 내려가는 거다. ‘영화가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치부하는 거다. ‘바지 입은 원숭이’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방법이다. 둘째,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꽃뱀과 어리버리의 사랑은 불순하게 시작됐지만, ‘에로스’가 없을 때에도 에로스의 일을 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끝까지 성신했다

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들의 사랑은 영화처럼 낭만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음미할 가치가 있는 영화의 병상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한 킬른스의 침상을 지켰다는 것. 사랑에 빠진 이들이 과거의 역사를 색칠해 가듯, 그렇게 과거를 색칠했다는 것. 사랑의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 이 채색은 결코 위선이 아니라는 것.

저자가 이 글을 보면, 그렇게 공을 들인 ‘루이스의 회심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걸로 서운해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난 ‘1929년 회심’을 ‘루이스가 1929년이라고 헛갈렸던 회심’으로 기억하게 됐다. 루이스 애독자로서 이 작업에 높은 점수를 주지만, 점수를 매긴 후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둘 일이 아닌 걸 어쩌랴. 이걸 저자도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친절하지 않지만 루이스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예기치 못한 기쁨>을, 루이스를 잭이라 부르는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루이스와 잭>을, 앞의 두 책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시시콜콜한 사실까지 알고 싶으면 「C. S. Lewis(복있는사람)」를 펼쳐라.

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지만, 이제 새 사람답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저자의 깨달음이고, 이것은 이야기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야기(Story)’에 대한 것이다. 학교에서 배운 ‘소설의 3요소’인 주제·구성·문체와 ‘소설 구성의 3요소’인 인물·사건·배경 등을 비롯, 줄거리나 저자, 시간, 이야기

의 정신, 결말과 시작 등이 소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휘트워스대학 종교 및 철학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는 자신의 끄적했던 경험과 그 이후 여러 사건과 느낌을 구속이라는 주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등 삼위일체, 구원론과 그리스도론 등 여러 신학적 테마까지 잘 버무려 흥미로운 새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좀처럼

공개적으로 도서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박영선 목사(남포교회)는 최근 ‘고난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만드신지 기대하라’며 이 책을 추천했다. 책을 읽고 나면, ‘신앙의 삶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섭게 주도하신다(박영선 목사 추천)’는 ‘하나님의 뜻’의 내용도 궁금해진다.

이대웅 기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김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여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김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은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액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HAND MEN AVAILABLE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팔리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전기 . 철공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용접, 게이트

경남 철공소

모터 수리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닝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밀크커피/한국차(유자차, 검은콩 울무차, 대추 생강차) 핫초코/카푸치노/블랙커피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찹쌀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선녀탕(仙女湯)매매

Meaning yellow matter 금줄에서 나오는 물
The natural minerals, sulfur, Calcium and magnesium with arsenic(비소).
최상급 수질, 최고수준 자연온천을 매매합니다.

선녀가 내려와 목욕할 정도의 최고급 수질 온천을 일명 선녀탕이라고 하는데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노상 온천 중에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Lake Isabella 근처 최상급 수질의 선녀탕,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치료와 미용에 으뜸인 자연 온천에 귀하신 분들의 투자, 동업 내지는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818-371-0763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one
stop

홍성사, 양화진책방에서 '성경 탐구가' 오경준 목사 출판기념회

“먼지 쌓여가는 성경, 다시 펼쳐 보게 하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합정동 양화진책방에서 홍성사 주최로 오경준 목사의 '더 있다' 시리즈 출판기념회가 개최됐다.

홍성사는 책을 출간했지만 아직 많이 소개되지 않은 국내 저자들을 대상으로, 지인들을 초청해 지난 5월부터 출판기념회를 열고 독자와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저자 소개와 함께 홍성사 정애주 대표와의 문답, 독자들과의 질의응답, 저자 사인회 순으로 진행됐다.

정애주 대표는 다시 한 번 출판기념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애주 대표는 “저희는 한 번 모셨던 저자라면 그 분에 대해 공부하듯 계속해서 책을 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며 “1년 동안 출판사에서 40권 남짓의 책을 출간하는데, 알려지지 않은 저자들도 많이 있고, 저작만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책을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인물 홍보의 장으로 변질된 출판기념회가 아니라, 저자의 지인들을 모신 상태에서 책을 예 쓰게 됐고 어떤 내용인지 등을 이야기하면서 ‘지인들이 저자를 알리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기념회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저지총은교회 협동목사인 오경준 목사는 올해 <신약에 더 있다>, <구약에 더 있다>를 잇따라 출간했으며, 앞선 지난 2004년과 2005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경에는 없



오경준 목사(왼쪽)와 정애주 대표가 문답을 진행하고 있다.

다)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성경에는 있다>를 각각 펴냈다. 오 목사는 이 외에도 소설류인 <마태가의 비밀(이상 홍성사)>, <2080 무저갱의 열쇠(예영)>를 발간하기도 했다. 다음은 정애주 대표와 오경준 목사의 일문일답.

-지난 2004년과 2005년 성경과 관련해 ‘없다’와 ‘있다’를 각각 내셨을 때, 읽으면서 ‘성경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독자들 반응은 어떠한가.

“독자들 반응은 괜찮았던 것 같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에 뭐 새로운 게 있겠는가’ 하면서 다 안다고 생각

하고, 설교 본문을 제시하면 내용까지 예상한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 신앙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실 성경밖에 없는 종교 아닌가.

책을 쓰면서 1차 목표는 ‘먼지가 쌓여가는 성경을 다시 펼쳐 보게 하는 것’이었다. 기독교가, 교회가 너무 성경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간혹 ‘지나친 상상 아닌가’ 하는 반응도 있었는데, 이는 기대했던 바였다. 이러한 내용을 놓고 논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경 연구서를 발간하다 갑자기 소설을 주셔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다. 자

첫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소재로 한 소설과 연구서는 집필 과정에서 어떻게 달랐다.

“성경을 연구하는 건 ‘땀’이 필요한 것 같다. 진득하게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소설을 쓰면 어느 순간 술술 풀리는 경험을 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내에서 아직 열악한 ‘기독교 소설’, ‘전도용 소설’에 대한 꿈이 있다. 그리고 ‘더 있다’ 시리즈를 썼으니 ‘더 더 있다(가제)’도 쓰고 싶다(웃음).”

-‘성경 탐구가’로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교회 설교 강단에서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설교가, 교회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분위기로 전환돼야 한다. 학술지나 신학자들에게는 성경 본문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쏟아지지만,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모두 접하기 힘들지 않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성경의 오묘하고 다양한 맛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처음 쓴 ‘없다’부터 읽으면 좋을 것 같다. 먼저 발을 담근다는 기분으로 읽고,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상과 성경 연구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책을 쓰면서도 ‘귀만 커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 잘 몰라도 말씀을 지키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다. 그냥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피와 살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감동’이나, ‘연구’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것 같다. 성경 연구 순서는 따로 없고, 한글로 된 성경을 먼저 읽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서 연구한다.”

오경준 목사는 서울신대(B.A.)와 신학대학원(M.Div.)을 이수하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Th.M.)을 마친 뒤 연세대 대학원(Ph.D.) 논문학위 중이다. 부천 낮은교회와 뉴저지길벗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고,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근원이라 믿으며 성경의 참 뜻과 숨은 뜻을 천착·탐구하여 글로 풀어내는 ‘성경 탐구가’이다.

강혜진 기자



자마 컨퍼런스와 함께 하는 소향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감사해” = 11월 8일 막을 올리는 자마 뉴어웨이크닝 컨퍼런스(JAMA NEW AWAKENING CONFERENCE)를 앞두고 방미한 가수 소향이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모 호텔에서 자마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소향은 이날 “미국을 깨우고 차세대를 세우는 자마컨퍼런스를 통해 자신의 달란트가 쓰임 받는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소향, 세번째가 자마 대표 김춘근 장로, 그 옆이 부대표 강순영 목사) 한편 이번 자마컨퍼런스는 2세 대회, 1세 대회, 한어권 청년대회로 나뉘어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컨퍼런스는 자마와 남가주교협, OC교협 그리고 각 지역 교협의 협력 주최 하에 열린다.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상경추 교정

경추 교정

척추 교정

체형 교정

관절염

자세 교정

허리 디스크 교정

골반 교정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뺏어진 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T. 213-219-273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www.myopenbank.com



오픈뱅크 청지기 프로그램

OPEN STEWARDSHIP FOUNDATION

오픈뱅크의 커뮤니티 사랑법! 청지기 프로그램

한인사회와 주변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현 프로그램을 활성화 및 확장하기 위해 [Open Stewardship 재단]에서 드리는 지원금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미주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기독교단체 및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오픈뱅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및 지원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오픈뱅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접수기간: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표일자: 2014년 2월 28일 (금)

213.892.1197 | 1000 Wilshire Blvd., # 250, Los Angeles, CA 90017

지원금 수혜자는 오픈뱅크 웹사이트,
신문광고 및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됩니다.

www.myopenbank.com



*Open Stewardship 재단이란?

Open Stewardship 재단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2011년 오픈뱅크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입니다. 동 재단은 매년 수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오픈뱅크에서는 본 지원금으로 종래의 자금제공 방식으로는 불충분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CEO MIN KIM

Wilshire Office
1000 Wilshire Blvd, Suite 100,
Los Angeles, CA 90017
Telephone (213) 892-9999

Fashion District Office
747 E. 10th Street, Suite 310,
Los Angeles, CA 90021
Telephone (213) 892-9999

Gardena Office
15435 S. Western Ave., Suite 100-D,
Gardena, CA 90249
Telephone (310) 354-6000

Aroma Office
3680 Wilshire Blvd., Suite 101,
Los Angeles, CA 90010
Telephone (213) 401-3500

Buena Park Office
(Opening Soon)
5141 Beach Blvd., Unit E&F
Buena Park, CA 90621

